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홍윤숙 시의 어조 연구



201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배 옥 주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홍윤숙 시의 어조 연구

지도교수 남 송 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배 옥 주

배옥주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0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위원 문학박사 남 송 우

위원 문학박사 조 동 구



목 차

• 영문요지(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12
II. 시에서의 어조	15
1. 어조의 정의	15
2. 홍윤숙 시에서의 어조	21
III. 홍윤숙 시의 어조 양상	24
1. 역동적 어조	24
2. 고백적 어조	38
3. 현실비판적 어조	55
(1) 풍자적 어조	56
(2) 해학적 어조	68
IV. 홍윤숙 시 어조의 특징	70
V. 결론	76
※ 참고문헌	80

ABSTRACT

The Study of Tone in Yoon-Suk, Hong's Poems

Ok - Ju, BAE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Yoon-Suk Hong's poems in terms of tones. The Studies of Yoon-Suk, Hong's poems have been sufficient so far. Specifically few studies on the partial aspect of euphony alone in her poems have been conducted. So, this study on her poem's euphony is very effective to shed light on the nature of her poetr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focuses on dynamics, confession of inner consciousness, and criticism of reality through the euphony of her poem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intrinsic structure and unique forms of her poems by making an analysis of euphony in her poems and to clarify the clues of dynamics, confession of inner consciousness, and criticism of reality.

This research adopts the followings as references:

(1) Roman Jakobson's theory of system of information transmission, (2) C. C. Colwell's viewpoints of euphony, type, rhythm, image, vocabulary and grammar suggested by Joon-O Kim, and (3) R. W. Boynin's "An Introduction to Poems." It selects as texts major poems of Yoon-Suk, Hong's anthology of poems and examines the poetic apparatus of language creating based on forming factors of language euphony, grammar and vocabulary.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go as follows. In the first, a dynamic euphony occurs when the future-oriented intention toward the Utopia is

based on the language of the past-oriented conviction depending on the absolute being. For example, the depiction of confronting and conflicting images, repeated directly-opposed structures of predicative and reduplication, and epigrams project the dynamic euphony strongly. In addition, an active interaction of stratum laid one by one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makes the whole structure dynamic.

Secondly, expressions of poems which stress the intention opposite to pessimism are depicted by Yoon-Suk, Hong's strong theistic conviction. In particular, Hong's intention expresses dynamic euphony externally, but her internalized intention conveys euphony of confession. The central idea of Hong's poems is always Christianity. Her religious consciousness converges into a return to the Utopia. According to her poetic logics, this world stands for 'a place away from home' and the next refers to hometown. The Utopia is defined as an aesthetic space to return. This is embodied through euphony of confession.

Thirdly, Yoon-Suk, Hong expressed her deep interest in Korea's tragic history and crippled political situations. This is closely related to her specific personal experiences in a student movement and her sudden change of mind by the Pacific War, the Korean War and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er attitudes of life satisfying aesthetic sense of poems are expressed as a reflexive structure of language when they conflict absurd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se attitudes criticize reality metaphorically using satires and humors.

In conclusion, the above things tell us that euphony of Yoon-Suk, Hong's poetry expresses not womanly weak aspects but manly dynamic ones. The inner consciousness of aesthetic space where to return is embodied through confessional tones. The poet's critical voice to circumstances of the absurd times depicts the world of her poetry.

I. 서론

1. 연구목적

홍윤숙(1925~)은 1947년 『문예신보』에 「가을」을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을 열었다. 그 후 57년간 15권의 시집을 발간하였고, 수필, 희곡 등의 다양한 문학활동을 펼쳤다. 2009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의 문학적 세계를 펼쳐온 홍윤숙의 시에는 격변기의 현실과 치열한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홍윤숙 시인은 초기의 『여사시집』이나 『풍차』에는 다소 감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장식론』이 발표되는 시기부터는 역동적인 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종교적 구원을 향한 시에서는 고백적 형태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미미하지만 삶에 달관한 풍자적 어조와 해학적 어조로 현실비판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홍윤숙 시인의 언어구사력의 역동적인 형태적 요소¹⁾는 반세기에 걸쳐 격동기 시대를 살아온 시인의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윤숙 초기 시에서 드러난 일시적 모성성이라든가 여성성을 배경으로 노래한 의식만으로 여성적이라거나 모성애적이라는 판단의 태도²⁾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홍윤숙은 그의 시작노트에서, ‘날날의 낡고 닳아빠진 일상의 언어들은 한 시인 앞에 나타날 때에 이제껏 쓰던 상식적이며 일상적인 기존의 옷을 죄다 벗어버리고 갓 태어난 태아처럼 때 묻지 않은 나신이 되어야한다’³⁾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식에 바탕한 그의 시세계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넘어서 있다.

격변기의 시대현실과 그의 삶이 잘 투영되어 나타난 홍윤숙 시의 어조는 여류시의 나약한 발성법을 벗어난 역동적인 어조가 특징이라 하겠다.⁴⁾ 그

1) 하현식, 「언어의지와 다이내믹즘: 우리시, 70년대」, 『현대시학』, 1985. 9.

2)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2.

3) 홍윤숙, 「홍윤숙 시전집」, 『시와 시학사』, 2005. 8. 472면.

4) 위의 책, 320면.

런데 광대하고 힘 있는 언어의식의 실험과 개척을 서슴지 않은 홍윤숙 시가 왜소한 여류시의 호흡을 뛰어넘어 1950년대 시사의 표적으로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가 생존한 시인이라는 사실과, 특정유파에 속해있지 않은 작가들은 관심밖에 놓이는 우리 문학 연구의 편향성, 또는 여성문학이 폄하되는 문학 풍토 탓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조연구는 김영수와 김귀희의 논문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한 편도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시의 어조에 주목하여 홍윤숙 시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어조를 통해 홍윤숙 시인의 시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그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해명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시인의 세계인식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관련 논문은 박사논문 한 편과 석사 논문 세 편, 그외 논평, 서평으로 고정희⁶⁾, 하현식⁷⁾, 홍신선⁸⁾, 박인기, 김지향⁹⁾, 박상천¹⁰⁾, 유한근¹¹⁾, 윤병로¹²⁾, 김현자¹³⁾, 이상호¹⁴⁾, 엄경희¹⁵⁾, 장백일¹⁶⁾, 이향아¹⁷⁾, 이형기¹⁸⁾, 김영석¹⁹⁾ 등이 있다.

박사논문으로는 김복순²⁰⁾의 논문 한 편이 있는데, 한국 현대 여류 4家시

5) 유영례, 위의 논문, 1면.

6) 고정희, 「존재의식과 시간의식」, 『현대시학』, 1981, 2.

7) 하현식, 「언어의지와 다이너미즘: 우리시.70년대/31」, 『현대시학』, 1985. 9.

8) 홍신선, 「홍윤숙론」, 『시원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9) 김지향, 「홍윤숙 시에 나타난 생활적 애정의식연구」, 『시문집』 14, 한양여자전문대학, 1991. 2.

10) 박상천, 「홍윤숙론 시인연구」, 『현대시』 2, 5. 한국문연, 1991. 5.

11) 유한근, 「죽음과 극기의 미학-홍윤숙 시 세계」, 『생각과 느낌』, 1994, 93~129면.

12) 윤병로, 「한국 시에서의 기독교와 문학-김남조와 홍윤숙의 시세계」, 『시문학』 280, 문학과 의식사, 1994. 11.

13) 김현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인문과학논집』 64편 제1호 별책, 이화여자대학교, 1999.

14) 이상호, 「홍윤숙론:시로 쓰는 삶, 삶으로 쓰는 시」,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1, 한국 예술원, 1991.

15) 엄경희, 「홍윤숙 시인의 삶과 시 정신」, 『송실어문』 17, 송실어문학회, 2001. 6.

16) 장백일, 「여사 홍윤숙 론-시세계 추구」, 『시문학』, 2003.5. 73~110면.

17) 이향아, 「시의 이론과 실재」, 서울, 『국학자료원』, 2002.

18) 이형기, 「홍윤숙론(소멸의 미학)」, 『현대문학』 398, 1988, 2.

19) 김영석, 「순수지향과 체관의 거리」, 홍윤숙, 『해방시대』, 미래사, 1991.

20)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연구-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인의 대표작을 통하여 여성 특유의 애정의식 천착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민족적 애정의식, 고독적 애정의식, 에로스적 애정의식, 일상적 애정의식 등의 애정의식을 통해 여류시의 주제인 애정의식에 천착 집성하는 작업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민족의 일대 수난기였던 6.25를 기점으로 전·후기의 변모과정을 천착키 위해 전시기인으로 모운숙, 노천명을, 후시기인으로 김남조, 홍윤숙의 작품에 연구를 국한시켰다. 그중 홍윤숙 연구를 살펴보면 『여사시집』을 발표한 이래 제 8시집 『태양의 건넌마을』을 상재한 시점까지 삶을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살아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시를 쓰는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삶을 사랑하는 의지로서의 시정신은 일상적 애정의식이란 일관된 주제로 상실에서 생명으로, 다시 영원으로 변모시켜가는 수법을 원용하여 상실의식에서 근원추구 그리고 구원 획득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층구조에 드러나는 시간, 공간 이미지도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 밑에 직조되어 있다. 시간이미지는 상실이미지에서 생명이미지로 그리고 영원 이미지로 변모해가며, 공간 이미지는 상실, 부재, 단절 등의 절망, 향수, 기다림과 이별 이미지로 표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복순은 연구에서 홍윤숙을 의미와 표현의 조화를 성공시킨 선두주자로 보고있으며, 현실인식에 개안한 투철한 장인의식의 시인으로 간주하고 있다.²¹⁾

김복순의 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등 네 명의 한국현대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 연구 중에서 홍윤숙은 네 번째로 연구되었는데, 김복순은 홍윤숙 시인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여류시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한 현실에 적극대응하지 못하고 도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복순은 결론에서 홍윤숙을 현실인식에 개안한 투철한 장인의식의 시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모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석사논문으로는 김영수의 「홍윤숙 시 연구」²²⁾, 김귀희의 「홍윤숙 시 연구」²³⁾, 유영례의 「홍윤숙 시 연구」²⁴⁾등의 제목이 같은 세 편의 논문이 있다.

21) 김복순, 앞의 논문, 172면.

22) 김영수, 「홍윤숙 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8, 12.

23)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5, 2.

24)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2.

김영수는 홍운숙 시를 크게 4기로 나누어 형식적 내용적 특질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홍운숙 시의 화자는 대개 실제 시인과 구별이 어려운 내포적 화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의 시작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홍운숙 시는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한다.

제 1기는 6.25전쟁 직후까지로 시인의 20대에 속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분단과 전쟁 등의 시대현실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상실감이 젊은 여성 화자의 독백적 진술로 나타난다. 관념적이고 감상적이며 리듬감 있는 언어를 통하여 삶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나가는 젊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제2기는 6.25이후부터 시인의 30, 40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가정을 가진 젊은 주부로서의 개인적 갈등이 폐쇄적 공간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모적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려는 화자의 인식으로 그 갈등은 극에 달하지만 결국 젊음은 시간에 순응한다는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관념과 감상을 벗어난 언어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제3기는 시인의 50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70년대의 물질문명으로 인해 부패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된 시대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기 시의 중심과제가 된다고 하였다.

제4기는 시인의 60대 이후로 죽음이라는 개인적 당면현실이 극복과제가 되는데 죽음 앞의 고독과 고통은 화자 지향의 단순하고 평이한 독백적 진술이나 상징 혹은 알레고리로 드러난다. 형식면에서의 특질은 화자, 진술방법, 시간과 공간, 이미지, 알레고리 등에서 찾고 있으며, 내용면에서의 특질은 당면한 현실 및 종교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다.²⁵⁾

김영수는 홍운숙 시인의 시세계를 4기로 나누고, 시의 특질을 형식과 내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시대 순으로 분류하여 일부 시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통시적인 연구에 치우쳐, 홍운숙 시세계의 다각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김귀희는 홍운숙의 시집 14권을 모색기, 성숙기, 관조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홍운숙의 시 세계 변모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외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존재인식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초

25) 김영수, 앞의 논문. 14~15면.

기의 애상적인 시, 이데올로기의 괴리로 인하여 갈등하는 청년기의 형상, 평범한 주부의 일상적 모습 등 그의 시 속에는 시인의 삶과 그 정신적 궤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죽음의 의미에 대한 대립과 화해의 과정, 지식인으로서의 사회고발,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존재의 가치와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 등 시인의 정신적 궤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의 기법적 특질로 화자 중심의 ‘나’ 혹은 ‘우리’로 구성되어 있는 고백적 진술방법이 많이 드러나는 초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황혼의미와 조락의 폐원을 상징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²⁶⁾

김귀희는 홍윤숙의 시세계를 3기로 나누었다. 1~2 시집을 모색기로, 3~7시집을 성숙기로, 8~12시집을 관조기로 보았으며, 인생과 현실의 변증법적 풀이를 시도한 홍윤숙 시인의 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고 김영수와 마찬가지로 통시적인 연구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준다.

유영례는 홍윤숙의 시집 15권을 분석하여 그가 추구해온 정신세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모성애적 감성의 시로 보았다. 그의 모성애는 일반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애뜻하고 자애로운 단순한 모정과는 구별되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생명의 근원으로 보았다. 시인의 어머니 역시 그에게는 성장과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신적 지주임과 동시에 고통을 참아내게 한 절체절명의 어머니요, 영원한 안식을 찾는 타관에서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인식과 생명의 시로 보았다. 여류로서 굳어진 기존개념이나 틀을 깨트리려는 노력이 보인다. 홍윤숙은 분단과 실향, 전쟁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권유자의 따뜻한 목소리로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다. 모성애적 감성이 연관을 가지는 시인의 목소리는 역사적 인식과 생명의 가르침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는 종교적 구원을 향한 시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의 시는 소멸의 문제가 집요하리만치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홍윤숙은 그의 의식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실존의 문제, 죽음과 허무의 문제에 천착해 시를 썼다.²⁷⁾

유영례는 홍윤숙 시인의 시세계를 세 갈래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역사

26) 김귀희, 앞의 논문. 2면.

27) 유영례, 앞의 논문.

적 인식과 생명의 시, 종교적 구원을 향한 시 연구에 비해, 모성애적 감성의 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성을 넘어선 홍윤숙의 시세계를 볼 때 모성애적 감성의 시는 일부분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하현식은 홍윤숙 시의 본질이 언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시의 양상이 의미의 전달보다는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홍윤숙에게 있어서 표현적 의도가 예술적 장식성을 지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목적의식이 승화되는 경계를 드러내는데 그 개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시각을 통한 세계성의 포착으로 규정되며 둘째, 사물을 바라보는 대범하고도 투명한 의식을 추량할 수 있고, 셋째, 제재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포괄적이며 형이상학적인 판단과 관심에서 획득되는 삶의 영원한 진실을 추구하는 데 전력하고 있으며 넷째, 삶의 비극성에 정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삶의 생명적인 요인을 간파하고 있다.

또한 삶의 비극적 형질에 더욱 비참한 의식을 가미함으로써 비극적 삶의 정체를 무화시키는 측면도 만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저돌적 취택으로 힘의 언어에 의거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여류시의 병폐로 지적되는 서정적 나약성을 초월하였다.²⁸⁾

하현식은 홍윤숙 시의 본질이 언어표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서정적 나약성을 초월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발견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표현적 의도의 예술적 장식성에 천착한 나머지, 주제의식을 찾아내는데 한계를 보인다.

김지향은 홍윤숙의 시집 3권을 중심으로 3기로 나누어 애정의식을 연구하였다. 『장식론』, 『일상의 시계소리』, 『태양의 건넌마을』의 세 시집을 통해 시적 관점을 생활적 애정의식에 맞추어 연구하였다. 소멸대상으로서의 『장식론』과 근원추구로서의 『일상의 시계소리』,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태양의 건넌마을』 등으로 분류해 생활적 애정의식에 관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작가의식의 변모는 시간 공간 이미지로도 나타나는데 시간이미지는 상실 이미지-생명이미지-영원이미지로 변모해가며, 공간이미지는 상실, 부재, 단절 등의 절망이미지-향수이미지-기다림과 이별이미지-구원이미지로 변모해간다.

28) 하현식, 『한국시인론-홍윤숙론』, 백산출판사, 1991. 472면.

홍윤숙을 연구하게 된 원인은, 여성 특유의 서정적이며 전통적인 여류시의 틀을 깨고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자아를 획득하고 신선한 충격을 던진 시인으로 홍윤숙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홍윤숙의 시를 통해 생활적 체험으로 야기되는 제반고뇌와 절망을 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수용하는지 고찰해봄으로써 작가적 위상과 아울러 후자계열의 삶에 동화되는 시 정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²⁹⁾

김지향은 홍윤숙 시의 애정의식을 3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현대여류시사에서 의미와 표현의 조화를 성공시킨 선두주자로서 현실인식에 개안했다고 보는바 투철한 장인의식의 시인으로 간주한 점은 김복순의 박사논문과 거의 비슷한 시각이어서 독창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박상천은 홍윤숙의 시를 10년 단위의 4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사시집』까지의 1기는 ‘헤어짐’이라는 삶의 결핍조건 앞에서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참는 시기로 감정적 관념적 언어에 의한 견딜과 외로움을, 『일상의 시계소리』까지의 제2기에서는 주변사물에 대한 사유를 통해 구축한 밝은 이미지를, 『하지제』까지의 제 3기에서는 내면세계로의 침잠을 통해 이루는 상징이나 건조한 이미지를, 『태양의 건넌마을』까지의 제4기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드러나는 삶의 깨달음과 회고의 자세를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생의 의미 찾기가 홍윤숙의 시작 원천이며 홍윤숙의 생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역설하였다.³⁰⁾

박상천은 홍윤숙의 시세계를 4기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홍윤숙의 시는 감정의 세계에서 사유의 세계로 그리고 생활의 세계로 돌아서고 그에 따른 이미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4기에 드러난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윤병로는 종교적인 면에서 홍윤숙의 시를 김남조의 시와 비교하였다. 종교적 구도행위 자체를 고통스런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구현하고자 하는 홍윤숙의 시는 애가적 시풍의 고행의 시가 된다고 하였다.

김남조의 시가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절대적 신앙의 힘이 주는 빛을 꿈꾸고 있다면, 홍윤숙의 시는 종교적 구도가 고행이며 일

29) 김지향의 「홍윤숙 시에 나타난 생활적 애정의식 연구」, 『시문집』 14, 한양여자전문대학교, 1991. 2. 153~195면.

30) 박상천, 「홍윤숙론 시인연구」, 『현대시』 2, 5. 한국문연, 1991. 5.

상적인 삶의 회한을 어루만지면서 내적인 체관의 정서로 포용하면서 내뿜는 절제된 애가적 시풍이다.³¹⁾

윤병로는 김남조와 홍운숙의 기독교문학을 비교하여 문학 고유의 본질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문학적 성취에 대해 연구하였다. 홍운숙 시인의 종교적 구도가 고행이지만, 그의 내세인 유토피아에 대한 염원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

이형기는 홍운숙 시정신을 자기구원에 두면서 전 시집을 대상으로 홍운숙의 시세계가 다음과 같이 발전해간다고 하였다. 치열한 시정신으로 시작한 홍운숙의 시는 『타관의 헛살』, 『하지제』 무렵의 중기에 이르러 현실인식이 강해지면서 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는 법』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한계의식을 보이고, 이와 함께 나타나는 과거지향의 의지는 『경의선 보통열차』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다가올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지향으로 표출되나 개인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은 죽음에 대한 예감으로 드러난다.

『낙법놀이』에서는 일생의 삶이 한 순간의 놀이였다는 의식을 드러냈으며, 『실낙원의 아침』에 이르면 생사에 대한 초월적 의지를 가지고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깨닫게 된다. 홍운숙의 시는 지상의 고락과 영욕을 털어버리기 위한 자기 구원의 열망에서 시작되어 독자의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사명을 다하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³²⁾

이형기가 바라본 격조 높은 홍운숙의 깨달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무소유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풍선처럼 불면 터져서 없어지는 무상의 소멸이 숙명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홍운숙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인 하늘로 돌아가는 희망의 노래를 간과한 한계를 안고 있다.

홍신선은 「북촌 정거장에서」에 드러나는 홍운숙 시의 특징으로 초기 시에서는 길의 이미지를, 중기 시에서는 여인으로서의 숙명 의식과 실물의 식을, 그리고 말기 시에서는 기독교적 사랑을 드러내는 알레고리 및 풍자를 지적하는데, 홍신선의 연구에서는 초기·중기·말기의 시 연구들이 서로

31) 윤병로, 「한국 시에서의 기독교와 문학-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세계」, 『시문학』 280, 문학과 의식사, 1994. 11.

32) 이형기, 「시로 쓰는 삶, 삶으로 쓰는 시-홍운숙론(소멸의 미학)」, 『현대문학』 398, 1988, 376~379면.

상호 보완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김현자는 『낙법 놀이』까지의 홍운숙 시의 특징이 대상과의 균형 잡힌 거리 위에서 관조적 태도로 우주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써 내밀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³³⁾

고정희는 『일상의 시계소리』, 『타관의 햇살』 그리고 『하지제』의 분석을 통하여 홍운숙의 시세계는 첫째, 시의 중심 테마를 이루는 시간이미지와 공간이미지가 이중구조를 띠고 있으며, 둘째, 시간인식은 무한 영원한 절대적 존재와, 유한 잠정적인 자기 인식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셋째, 그러한 시간관은 ‘오늘’이 모티브가 되며, 넷째, 그 ‘오늘’은 곧 지금 속해 있는 ‘현실 정황’과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홍운숙 시인의 시에 드러난 내세에 대한 미래관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장식론』에서 심정의 객관적 사물화를 통해 대상을 재발견한 홍운숙은 『일상의 시계소리』에서 신이라는 정신적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여 『타관의 햇살』에 이르고 『하지제』와 『사는 법』에서는 타관이라는 공간의식과 생명의 유한성에서 오는 위기를 영혼의 존재인식을 통하여 벗어나게 된다고 유한근은 주장한다.³⁴⁾

김영석은 시선집 『방목시대』의 해설에서 홍운숙의 시는 순수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비극적인 삶의 반응들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비애의 정서가 역설적인 자학 감정을 거쳐서 마침내 체관의 정서에 이르는 과정이 큰 변화라고 정리한다.³⁵⁾ 그러나 자학 감정을 거친 체관의 정서에 관한 논자의 시각은 다소 좁은 시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상징이나 리듬, 시간인식, 공간의식 등이 고찰되었다. 제목이 같은 석사 논문 세편도 형식면의 고찰이 상실이나 사랑 등 내용상의 특질에 결들여 부분부분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소 가벼운 평론이나 해설에 속할 뿐 아니라, 홍운숙에 대한 평가의 초점을 존재천착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 외에 여성의 삶과 언어적 성찰, 종교적 의지, 그리고 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33) 홍신선, 「홍운숙론」, 『시원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637~654면.

34) 유한근, 「죽음과 극기의 미학-홍운숙 시 세계」, 『생각과 느낌』, 1994, 93~129면.

35) 김영석, 「순수지향과 체관의 거리-홍운숙」, 『해방시대』, 미래사, 1991, 139~147면.

연구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성과는 홍윤숙이 50여 년 간에 걸쳐 창작하고 발표한 작품의 양과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단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³⁶⁾ 특히 홍윤숙의 시가 지니고 있는 어조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인 언급이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이에 홍윤숙 시에 나타나는 어조의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시는 그냥 쓰여진 채로 있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어조로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시에 있어서의 어조는 시의 극적인 정황이 암시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거나, 비평적인 개념으로 적극 활용된 예가 드문 것 같다. 단편적인 시의 인상을 표시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넓게는 소리의 조직에서 비유까지 문체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³⁷⁾

시는 시인의 은밀한 독백을 엿듣는 문학이므로, 시에서 언어선택은 어조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생활에서 의미의 대부분은 어조에 의해서 지시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어조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내포로서의 시어는 이 어조에 의한 독특한 의미를 지닌 것을 말한다. 시의 언어가 일반 언어와 같은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³⁸⁾

시를 읽을 때, 화자와 어조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어조는 화자의 개성이며 심리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조연구는 모든 시적 요소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자세히 읽게 해주며 특정요소에만 집중하지 않아 시의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문학작품 그 자체에 가장 충실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에 사용된 리듬, 이미지, 어휘, 어법 등을 통해서도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토운은 전달된 기분이며, 시 구조의 기초

³⁶⁾ 김영수, 앞의 논문, 11면.

³⁷⁾ 이상섭, 『문학의 이해』, 서문당, 1972, 67면.

³⁸⁾ I. A. Richards, 이선주(역),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2005

가 된다고 본 C. C. Colwell의 견해가 있다. 시의 구조적 기초인 소리와, 이 소리가 표현하는 무드가 합쳐서 토운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표현적인 소리와 함축적 의미의 선택된 시어들의 조합이 특정한 기분을 전달하게 되며, 이 기분이 토운을 구성한다고 보았다.³⁹⁾ 이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의미의 대부분이 심리적 기분에 의해서 제시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인이 토운을 염두에 두고 언어를 선택하며, 시의 구성요소인 운율, 비유적 표현, 이미지리의 패턴을 포함한 시법의 구조적인 면을 통해서도 토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운을 중심으로 시에 접근할 때, 시의 음향구조, 이미지의 패턴, 연과 연의 형태, 시어 등의 분석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⁴⁰⁾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시적 자아라고도 하는 화자는 시인이 시를 통해 보여주는 가면이다.⁴¹⁾ 화자는 그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며 그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목소리와 역할은 화자의 개성을 구현한다. 시인은 시적 상황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퍼소나(persona)’라는 장치는 여러 가지 수사적 목적에 기여한다.

화자를 시인과 동일시하면 개성론이 되고, 별개로 보면 몰개성론이 된다. 그러므로 개성론의 시는 고백적이며 자전적이나, 몰개성론의 시는 허구적이고 극적이다. 시인과 화자의 구별은 창조라 할 수 있다. 화자를 시인과 구분할 때 배우의 가면을 의미하는 퍼소나(persona)가 생기는 것이다.⁴²⁾ 그러나 화자가 실제 시인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전기적 사실과의 비교를 통해 밝힐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대상은 자연인으로서 시인의 모습이 아니라, 시를 통해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⁴³⁾

본 논문은 야콥슨의 언어전달 체계이론, 김준오의 어조 유형을 참고하였으며, 시에 사용된 리듬, 이미지, 어휘, 어법 등을 통해서도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C. C. Colwell의 견해, 그리고 R, W, Boynin의 『시에 대한 소개』에 나타난 언어의 형성요인(운율, 문법, 어휘)에 근거하여 홍윤숙의 시

39) C. Carter Colwel, 이재호·이명섭(역) 『문학개론』 제 4판, 을유문화사, 1977, 305~306면./ 단 어는 모든 단위에서 심리적 기분을 드러내므로 시어도 심리적 기분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40) 김준오, 앞의 책, 271면.

41) 김영수, 앞의 논문, 12면.

42) 김준오, 「시론」, 『삼지원』, 제4판, 2005. 9. 282~283면.

43) 김영수, 위의 논문, 12면.

내적으로 어조를 창조하는 시적 장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행과 연, 시어, 이미지 유형, 리듬, 행말어미 등을 포함한 시적 장치들을 함께 고찰하여, 그의 시세계가 언어적 역동성을 통해 서정적 나약성을 초월하고, 고백적 어조로 간절한 심정적 열망을 드러냈으며, 풍자적 어조와 해학적 어조로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는 현실비판에 기여했음을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총 15권으로 집대성된 홍윤숙 시전집을 포괄적인 인식으로 살펴볼 것이다. 홍윤숙의 작품에 대한 전체적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는 편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지만, 홍윤숙 시의 어조연구는 시인론 연구에 국한된 기존 논문들의 시각을 벗어나 시인의 시세계를 시 본질적인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지리라 기대한다.

Ⅱ. 시에서의 어조

1. 어조의 정의

어조는 화자의 태도로서 목소리의 비유로 정의된다. 어조, 곧 ‘토운’이란 용어는 원래 언어학에서 쓰이던 용어였다.⁴⁴⁾ 이후 영미 신비평의 대두와 함께 이 용어는 문학에서 은유적으로 차용하여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어조는 문학작품이나 작품의 문체와 같은 것에 있어서의 막연한 특질, 종종 감정상의 특질을 가리켰다.⁴⁵⁾ 이에 대해 I. A. Richards는 어조를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⁴⁶⁾ 이때 화자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고 청자에 대한 태도의 표명이 곧 어조가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시에 접근하고 시를 분석하는 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해진다. 시가 하나의 담화임을 상정할 때 화자, 텍스트, 청자의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

44)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2000. 797~798면.

45) 정재완, 『한국 현대시의 반성』, 형설출판사, 1981, 99면.

46) I. A. Richards, 이선주(역),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2005, 182면.

하게 된다. 시인은 이 어조를 통하여 외부와 소통되지 않는 닫힌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조는 작품 내에 외부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를 꾀하는 한 양식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관건이 된다.

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시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시의 존재가능성이 언어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를 연구하는 어떤 태도도 시가 언어란 토대 위에서 성립된다는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벗어나서는 옳바르고 바람직한 연구가 되기 어렵다.

시는 압축된 형식 속에 시적 내용을 응결시키는 절제되고 함축된 상징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의 장르보다 언어구조의 긴밀성과 유기성이 필요하다.⁴⁷⁾ 이러한 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의 요소로 어조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어조는 시 내부의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조가 ‘모든 시적 요소들의 총집합’⁴⁸⁾으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어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말투 즉 어조란 ‘자기의 주제에 대한, 듣는 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규정된다. 요컨대 목소리의 비유다. 어조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물과 독자(듣는 이)에 대한 저자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어조는 말하는 이의 사람됨, 그의 신분과 정신 상태를 나타낼 뿐 아니라 듣는 이의 신분, 정신 상태에 대한 그의 판단도 나타낸다.

전달체계의 요소들과 이에 상응하는 언어기능들에 근거한 Roman Jakobson⁴⁹⁾의 이론은 무엇보다 시의 어조를 분석하고 이 어조를 기준으로 시를 유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⁵⁰⁾ 시의 어조가 제재와 독자 그리고 화자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할 때, 이것은 벌써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어조

47) 김재홍, ‘현대시 분석방법론’, 『한국문학연구방법론』, 민족문화사, 1983, 93면.

48) Laurence Perrine, 조재훈(역), 『소리와 의미』, 형설출판사, 1998, 152면.

49) R. 야콥슨은 언어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지시적 기능은 의사 전달의 기초이다. 이것은 전언과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정서적 기능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전언과 발신자 사이의 관계이다. 하나의 의사 전달을 행할 때에 우리들이 발신하는 것은 그 지시 대상의 본성에 관한 여러 가지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적 기능은 전언과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시적 기능은 전언 그 자체에 대한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 지시 대상인 전언은 의사전달의 도구로서 존재하기를 그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황적 기능은 의사 전달을 확인하고, 지속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단어적 기능의 목적은 수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기호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기호를 그 기호가 스스로의 의미 작용을 추출하는 근원이 되게 하는 규약으로 환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의 의사 전달 행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 행위란 있을 수 없다.

50) Roman Jakobson, 신문수(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94, 67면.

가 달라지고 이 어조의 차이가 시의 여러 유형이 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⁵¹⁾

화자가 여러 말의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과 주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독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접 결부된다.⁵²⁾

김대행은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의 반영이 어조이며 이 어조의 거리(distance)와 태도(attitude)⁵³⁾를 연구하였다. 정재완은 화자의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에 나타나는 어조 유형을 8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⁵⁴⁾ 조창완도 시의 화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조 문제는 시적 화자의 설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몇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⁵⁵⁾

신동욱은 민속과 풍습까지 문화적 자원으로 잡아 제문 등에 나타나는 예스런 장중한 목소리와 근대적인 내성적 목소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시조에서 근대시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목소리와 목소리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연구하였다.⁵⁶⁾

이영길은 소월시의 어조를 감상, 걱정, 저항의 세 가지 어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⁵⁷⁾ 이광호는 박재삼 연구에서 시에 나타나는 어조와 운율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재삼 시의 어조가 구축하는 친밀한 대화공간은, 언어의 기능화에 대한 거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시의 어조가 일상적인 대화에 가까워질수록 풍부한 삶의 정황이 깃들게 되고, 시는 역동적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⁵⁸⁾

강현국은 『청록집』에 국한하여 박목월과 박두진의 어조적 차이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세계인식의 차이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의 논의는 어조 분석을 통해 시인들의 세계인식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⁵⁹⁾

어조는 담화의 한 형식으로 볼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다.⁶⁰⁾

51) 김준오, 앞의 책, 275면.

52) 고희진, 「만해시의 어조 연구」, 『오문학 연구』, 1995, 78면.

53) 김대행, 『시가시학 구조 연구』, 이대출판부, 1991, 95~100면.

54) 정재완, 앞의 책, 105~117면.

55) 조창완, 「시의 화자 및 어조의 문제」, 『심상』, 1982, 11, 116~135면.

56) 신동욱,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85~121면.

57) 이영길, 「소월시의 어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2.

58)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7.

59) 강현국, 「청록과 시의 어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3.

60)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초기 시의 어조와 운율분석」,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7, 10면.

화자의 태도는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로만 볼 수는 없다. 어조는 화자의 심리상태에서만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파생되기도 한다. 어조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주관적인 태도와, 대상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 연계되는가에 따라 어조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⁶¹⁾

어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그것을 듣는 이인데, 이 경우의 듣는 이는 실제 시를 읽고 있는 이가 아니라, 시 속에 등장하는 듣는 이, 즉 허구적 인물로서의 듣는 이다. 이 어조에 따라 조소적이다, 냉소적이다, 압도적이다, 예언적이다, 아이러니적이다 등등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⁶²⁾

어조는 화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어조는 화자의 인격이나 신분 또는 마음의 상태 등을 나타내고, 또한 어조는 청자의 신분, 정신상태도 드러낸다. 화자는 현대시론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으며,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⁶³⁾ 화자는 우선 그 시 속의 화자가 시를 쓴 시인과 동일시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허구적인 인물인 화자를 내세우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영국 낭만파 시인 John Keats⁶⁴⁾가 말한 ‘소극적 수용력(Negative Capability)’⁶⁵⁾의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수용력이란 시인이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를 넓은 마음으로 모두 수용하여 자아를 부정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만약 시인이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에 입각해서 시를 쓴다면, 자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세계밖에 담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화자에게 가면을 씌우는 이유는 자아로부터 탈피한 시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의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다.⁶⁶⁾

61) 권혁웅, 「현대시의 어조 연구」, 『한국문예비평 연구』, 제 26집, 창조문화사, 2008, 137~138면.

62) 김광길, 「형식주의 비평 연구」, 『경기대학교 인문논집』, 1997.

63) 김준오, 위의 책. 279면.

64)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다. 1815년에 『채프먼의 호머를 처음 읽고서』라는 소네트를 써서 유명해졌다. 26세로 요절하기까지 영국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천재로 명성을 떨쳤다. 『하리퍼리인의 몰락』, 『성 애그니스의 저녁』, 『무자비한 미녀』, 『나이팅게일에게 바치는 송가』 등의 작품을 남겼다.

65) 소극적 수용력(negative capability) : 키츠가 1817년 12월 21일 형제들인 조지와 토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된 표현.

66)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16면.

소극적 수용력은 수동적 수용성⁶⁷⁾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시에 대한 부정적 능력⁶⁸⁾의 시인이었던 John Keats는 비평에 귀를 기울이려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꿈의 모습과 현실의 각성을 다룬 세계를 탐구하려고 시를 쓴 것이었다. 시가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빼고 창조성으로 시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인간을 통하여 시 자체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의 주장은 후에 19세기 예술지상주의나 심미주의와 맞닿는 주장이었다.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반 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인 시적 자아는 시인의 대리인이다. 시적 자아를 어떤 인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의 적절한 선택은 상황이나,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인의 관념이나 정서를 가장 극대화시켜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시적 화자는 작품 안에서 일관된 모습과 목소리로 작품의 통일성에 기여하는데, 시적 화자의 모습이나 가치관, 인생관 등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시적 화자는 작품 안에서 배경묘사를 하기도 한다. 이때의 배경은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모두 포함하며,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배경묘사를 통하여 시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화자가 시인 자신인 경우에는 자기 고백적, 반성적인 성격을 띠지만 화자로 특정한 인물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시인의 정서나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효과적이다. 객관적인 태도로 시를 쓴 경우는 화자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시의 소재에 대하여 관조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어조들은 어휘, 어휘의 배열, 논리, 리듬, 말의 속도, 높낮이 등의 매우 다양한 국면을 통하여 노출된다. 이러한 어조는 한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수도 있고, 시상 전개 도중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시를 시작했을 때의 정서와 진행된 후의 정서가 서로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67) 김명복, 『영국낭만주의 꿈꾸는 시인들』, 동인, 2005, 275면.

68) 양재용, 『영미시 입문』, 동인, 2006, 47면.

2. 홍윤숙 시에서의 어조

어조는 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시의 한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세계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따라서 어조에 관한 연구는 시의 어조적 특징에 관한 규명과 함께 세계인식과 관련되는 어조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어조는 화자의 목소리이므로 시에서 언어선택은 어조에 의해서 결정됨⁶⁹⁾을 지적하였다. 어조는 시의 독특한 말씨라고 할 수 있으며 시인의 목소리, 화자 혹은 퍼소나(persona), 청자, 변주의 개념, 시어의 계층 등이 어조를 나타내는 인자⁷⁰⁾라고 할 수 있다.

시에서 어조는 여러 시적 요소들의 복합적 연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요소이다. 시는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 작품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어떤 형태로건 그 작품의 어조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⁷¹⁾

시에서 어조를 이루는 요소들을 어조의 형성기저라고 한다. 이것은, 어조 형성에서 근본적으로 시인의 내면의식에 작용하는 심층기저와 시의 표면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표층구조의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어조가 시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세계에 대한 태도의 표명에서 이는 심층적으로 시인의 의식과 닿아있고 직접적인 언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들 양자는 편의상의 구별일 뿐 실제로는 표리관계에 있다.

어조 형성의 심층기저로는 시인의 성향, 전통성의 구속, 시인의 대상에 대한 파악, 현실 파악과 대응, 한국어의 특성에 따른 언어적 요소들을 들 수 있다. 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시의 어조 표현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김소월의 여성주의적 편향은 그의 시에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들이다.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이를 파악하는 시인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시에 표현되는 어조가 다르다. 시인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힐수록 감정이 노출된 목소리가 나타나고, 거리를 멀리 할수록 건조한 목소리가 나타난다. 김춘수의 현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시에서는 비인간화된 어조가 느껴

69) 김준오, 앞의 책, 172~213면.

70) 이승훈, 『한국시의 구조 분석』, 종로서적, 1987, 80~85면.

71) 강현국, 앞의 책, 59면.

지고, 김수영의 현실에 대한 부정과 도전의 시에서는 시인과 화자가 일체화된 육성의 강렬한 어조가 나타나 매우 다른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조사와 어미의 교체와 활용에 의해 섬세한 어조 표현이 가능해짐으로 우리말의 성격도 어조형성에 심층적으로 관여한다. 시인은 이러한 요소들의 바탕 위에서 어조를 표현한다. 시의 표면에 구체적으로 어조를 구현해내는 표층기저로는 언어적 형성요소와 퍼소나(persona) 및 시간, 공간의 모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의 어울림에서 시를 발화하는 발화자의 목소리가 시의 표면에 살아난다.

언어적 형성요인에는 운율과 문법적 요인, 어휘적 요인이 속한다. 조사와 어미란 허사의 쓰임에서 만들어지는 뉘앙스의 차이, 어미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등에 따라 어조가 달라진다. 또한 시어의 운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운율의 모습 역시 시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조사에 의한 시어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각기 토착어, 관념어, 방언, 비속어, 특정계층의 언어인가에 따라서도 어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조에 단독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황이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식이다.⁷²⁾

한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어조는 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포괄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시인론에 비하여 매우 적다. 어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보다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조는 말의 구체적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야 판별할 수 있다. 앞에 내세운 어조와 저자의 숨겨진 어조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⁷³⁾ 어조의 종류는 우리의 감정 변화만큼이나 많다. 역동적 어조, 고백적 어조, 낭만적 어조, 비판적 어조, 사색적 어조, 해학적 어조, 회화적 어조, 걱정적 어조, 조롱조 어조, 농담조 어조, 분개조 어조, 예찬조 어조, 관조적 어조들이 심각할 수도, 우회적일 수도, 단도직입적일 수도 있다.⁷⁴⁾

홍윤숙의 어조는 역할이나 본질, 기능, 유형, 등 어떤 형태로건 작품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윤숙 시의 어조를 고찰하기 위해, 어조의 관점에서 본 시인연구인 강현국의 논문에서 심층기저와 표층기저의 어조

72) 김영미, 「한국 현대시의 어조 연구-영랑과 청마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8면.<<김영미가 분석한 R. W. Boynin의 견해.>>

73) 이상섭, 위의 책, 237면.

74)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개정판 4쇄, 2007. 9. 237면.

형성기저 유형과, R. W. Boynin의 『시에 대한 소개』⁷⁵⁾에 나타난 운율, 문법, 어휘적 형성요인, 그리고 김준오의 어조 유형, 시에 사용된 리듬, 이미지, 어휘, 어법 등을 통해서도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C. C. Colwell의 견해를 활용할 것이다.

홍윤숙 시의 어조에서 두드러지는 시적 장치의 어조 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홍윤숙 시가 가지는 모든 외연적, 내포적 가치와 함축에 관한 언어양상을 고찰하여 홍윤숙 시세계에 드러나는 역동성과 고백성, 풍자성, 해학성을 규명할 것이다.

Ⅲ. 홍윤숙 시의 어조 양상

1. 역동적 어조

(1)시의 어조에 있어서 힘의 요체가 되는 것은 의지와 신념의 내면의식이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절대자에 의존하는 과거지향적 신념에 언어의 바탕을 두었을 때 힘 있는 어조가 생성된다. 가령 대결과 충돌적 이미지를 그려낸다고든가 시어의 강도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유성음이 아닌 무성음, 즉 경어나 한자어의 추상명사를 취할 때 어조에 힘이 실린다.

또한 강인한 시적언어는 비시적 성격의 언어를 구사했을 경우에도 선연히 드러난다. 일종의 정서로부터 벗어난 비감각적 언어에서 어조의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독기 짙은 패기의 언어에서는 정서를 품은 힘의 어조를 지니게 된다. 이른바 언어의 마성을 드러내는 경우이다.⁷⁶⁾

한편 힘의 시학은 치열성을 지닌 재제에서도 개연성을 지니며, 수사적 형태에서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 등의 서술종지형을 통하여 야기된다. 또한 첩어구조를 지닌 의성어와 의태어라든가 준첩어의 상반된 반복적 구조에서 강렬하게 투사된다.

⁷⁵⁾ R. W. Boynin, 『Introduction to a poem』, NAYDEN, 1973, 57면.

⁷⁶⁾ 하현식, 앞의 책, 331면.

대체로 경구법은 명령형에 수반되어 힘의 언어를 나타낸다. 뜨거운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정신적 가치를 형상화하면서 남성다운 통쾌감이라든가 언어의 건강미를 기조한 파찰음 내지 파열음의 활용을 통해서도 시적 어조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언어의식과 정화작용과 감동의 배설에 연결되는 카타르시스적 언어형태를 통해 힘의 어조가 정착된다.

또한 성층구조적인 측면으로 구조 내지 존재양상을 밝히는 방법이 있는데 Sydney Lamb의 성층문법(stratificational grammar)은 후기블룸필드학과 구조주의의 여러 특성과 언리학(glossematics)으로 알려진 다른 초기 이론의 특성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이론이 '성층'문법으로 불린 이유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구조적 층에 의한 언어 구조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층의 구조로 작품의 구조 내지 존재양상을 밝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의미의 층을 밝힌다. 여러 가지 층이 단지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계층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전체구조를 역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⁷⁷⁾

(2)홍윤숙 시에 있어서 힘에 수반된 일차적 어조의 관건은 의지와 신념으로부터 비롯된다. 홍윤숙 시에 있어서 힘의 어조는 여류답지 않은 남성적 건강성을 발휘한다.⁷⁸⁾ 제재가 지니는 부정적 의미도 미래지향적 의지로 인해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신념을 통해 긍정정신의 시적 어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처녀시집은 그 세계를 알아가는 데 필수적 자료가 된다. 시인이 천착하려는 세계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언어적 자질이라든가 주제적 관심이 반영됨으로써 한 시인의 생애적 축도역할을 하게 되는데 홍윤숙이 조탁하는 어조는 여성적인 나약한 틀을 벗어나 남성적 역동성으로 활착되어 있다.

뜨거운 것은 아니올시다

불붙는 것은 더욱 아니올시다

77) 나병모, 양만섭, 『언어학의 이해』, 동인출판사, 1996. 98~101면.

78) 하현식, 앞의 책, 329면.

높고 맑은 것
겨울날 두터운 얼음장 밑에 고이는
파-란 옹달샘 같은 그러한 것이
나의 태양이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움 바치지 않고
잊혀져버린 작은 수목처럼
살아온 어느 세월

나는 마음 착한 少女처럼
忍耐라는 험준한 戀人을 섬겨왔습니다

季節의 換期-
빗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엔
눈 먼 女人처럼 지척거리는
마음의 고삐를 채찍질하며

아 진정 그리워한다는 것이
사슬처럼 무거운 밤
당신의 무서운 責罰앞에
나 앞드려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풀 길 없는
하나의 約束을

어찌할 수 없이 지켜야만 되는
무서운 約束을 주셨습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죽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煩惱스러운 約束을……

- 「하나의 約束을」 전문⁷⁹⁾

이제는 아무 것에도 꺾이지 않을
한 그루 든든한 수목이리다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엔
긴 年輪이 그 위에 스쳤고
부질없는 바람이 넘나든들
우람히 뻗은 가지 가지들
굳건히 이겨주는 마음입니다

폭양과 凍死의 무서운 계절에도
끝내 이겨야 할 樹木의 운명은
항시 젊은 전사의 장렬한 최후와도
같았음을
한 방울 푸르고 싱싱한 樹液을 위해
온몸의 살갗은 살살이 해를 향해
메말라갔고
넓으나 넓은 大地 위에 발돋움 든든한
자리를 위해
밤마다 樹心은 눈물지었으니

이제는 아무 것에도 傷念하지 않을
한 그루 의젓한 樹木이리라

- 「樹木의 書」 일부⁸⁰⁾

홍윤숙 시학은 신념과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홍윤숙 시의 대부분이 과거지향적 신념과 미래지향적 의지를 반증하는 특징적 형태를 띤다. 초기 시로부터 중기를 거쳐 말기에 해당하는 제 15시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적 바탕으로부터 힘의 어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79) 홍윤숙, 시전집, 『여사시집』, 시와 시학사, 2005. 56-57면.

80) 홍윤숙, 앞의 책, 『여사시집』, 63면.

「하나의 約束을」과 「樹木의 書」에서 비추어볼 때 전자는 과거지향적 신념에 닿아 있으며 후자는 미래지향적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상기한 두 시편이 가지는 신념과 의지에 의한 남성적 어조와, 섬세한 고유어에 의존하기보다는 투박한 한자어에 의탁한 점을 통하여 더욱 강한 힘의 어조를 실감할 수 있다.

「하나의 約束을」에서는 역설적이거나 반어적 구조로서 ‘태양’과 ‘인내’에 대한 신념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강화하는 의식을 통하여 힘의 속성을 지닌 언어로 구현되고 있다.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역동성은 ‘약속’이나 ‘인내’라는 무성음으로 다져진 추상명사의 반복표기나, ‘ㄱ’, ‘ㄱ’ 받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반복법이 제시하고 있는 힘의 원천을 통하여 역동감을 느끼게 되며, 일체의 서정성이 배제된 단호한 어조에 힘의 원리를 싣고 있다.

‘뜨겁고 불붙는 것’이 아닌 ‘높고 밝은 것’으로서의 역설적 장치가 내면적인 힘을 환기시킨다. 말미의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약속과 특히 ‘죽어도 망각할 수 없’는 약속에서 힘의 실체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약속’이라는 낱말이 지니는 의미적 단호함이 언어의 역동성으로 작용하고 무성음보다는 내용적 힘의 언어개념으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힘을 실어준다. 홍윤숙 시에 있어서 역동감은 그의 시적 생애 전체를 풍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홍윤숙의 지향점은 여성적 어조의 ‘웅달샘’이지만 그에 머무르지 않는 단아하고 정숙한 제재로부터 ‘태양’이라는 거대한 힘을 발견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감한 ‘수목’을 투시하여 ‘인내’를 발견해냄으로써 정감적인 대상에서 한층 더 상승된 힘의 어조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으로 두 시편에서 거론되는 형태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경어체에 의한 시적 전개방식이다. 대체로 시에 있어서의 경어체 구사방식은 건조한 정감을 살리려는 효용성을 가지지만 홍윤숙 시학에서는 오히려 정감적 경계를 넘어서서 남성적 어조를 강화하려는 심증을 갖게 된다.

굵직하고 도도한 서술종지형의 어감은 시 언어의 힘 자체로 환기되고 있다. 가령 「하나의 約束을」에서 ‘아니올시다’, ‘태양이었습니다’, ‘섬겨왔습니다’ 등과 「樹木의 書」에서 ‘수목이리다’를 볼 때 한결같이 남성적 어조로 강인한 의지와 신념의 내면의식을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과거지

향성은 과거시제 서술형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미래지향성 또한 미래시제 서술형을 통해 보여준다.

(3)시에 있어서 힘의 어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다양한 서술종지법을 쓰기도 한다. 현실참여적 시풍에서는 대개 평서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홍윤숙 시의 경우는 힘이 뒷받침되는 서술종지형을 사용하여 어조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는 본격시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어조의 한 유형으로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의문형을 활용하고 있다.

몇 날 몇 밤을 비가 오는가
바다만한 슬픔으로 누가 우는가
저토록 즐기란 빗발이 되게
이 세상 마지막 날 같은 우울함이어

플라타너스 널따란 잎새마다
寒氣에 떠는
午後의 거리를 젖어서 왔다

등불을 켜자
마음 속 구석구석 빗발이 지는
어둡고 눅눅한 가슴에 불을……

젓빛으로 단혀있는 작은 방마다
안개처럼 서려오는 옛일마다
장밋빛 불을 켜서 비쳐주리라

- 「우기의 시」 일부⁸¹⁾

잠자는 법 눈뜨는 법
걸음 걷는 법
하루에 열두 번도 하늘 보는 법

⁸¹⁾ 홍윤숙, 앞의 책, 『풍차』, 165면.

이를 빼고 숨 한 뭉치 틀어막는 법
 한 근씩 살 내리며 앓는 법 배워요
 눈물의 소금으로 헛바닥 절이며
 열 손가락 손톱마다 동침 꽃고 손 흔드는
 이별법도 배워요
 입술 꼭꼭 깨물며 눈으론 웃고
 목구멍 치미는 악 삼키는 법 배워요
 가슴 터져나도 千里 긴 강물 봉대로 감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죽는 법 배워요

- 「사는 법」 1」 일부⁸²⁾

「우기의 시」에서 1연 ①행의 서술어 ‘오는가’와 2연 ②행의 서술어 ‘우는가’를 통해서 홍운숙 시의 의문형의 묘미를 느끼게 된다. ‘수없이 많이 오는 비’와 ‘한없이 우는 슬픔’을 암시하여 ‘수없이’와 ‘한없이’가 갖는 정서적 힘을 드러낸다. ‘수없이’와 ‘한없이’를 배제하고 단순한 의문형을 취하여 힘의 어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3연 ①행의 ‘등불을 켜자’에서는 청유형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유형의 효용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더불어’ 또는 ‘함께’라는 의미 확장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수없이’, ‘한없이’와 ‘더불어’, ‘함께’라는 확장된 의의를 통해서 강한 시적 어조를 기대하는 것이다.

4연 ③행의 ‘비쳐주리라’는 감탄형의 정서를 드러내지만 단순한 감탄적 정서가 아니라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비쳐주리라’를 통하여 기어코 ‘비치고 말겠다’는 의지를 통해 ‘불’의 뜨겁고 웅대한 포부를 나타낸다.

한편 홍운숙의 「사는 법」 연작은 중기시의 대표적 역작이다. 더욱 남성적이며 현실적 시각을 함축한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종래에 가지던 정조의 경지에서 돌변하여 변신의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홍운숙의 시적 역동성은 15권의 전 시집 어디에서도 만나게 되지만 첫 시집 이후 20여년 만에 상재한 『사는 법』(1983) 연작에 와서 그 꽃을 활짝 피워낸다. 가령 「사는 법 1」에서 시행의 서술적 기능을 피하고 ‘~법’ 같은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고유어 본색의 진솔이면서도 서정적 요소가 배

⁸²⁾ 홍운숙, 앞의 책, 『사는 법』, 565면.

제된 언어만을 취하여 힘의 원리를 구사한다.

‘법’ ‘뭉치’ ‘손톱’ ‘동침’ 등의 언어 군을 통해 격음 내지 경음으로 구사된 언어특성을 살려 힘의 시학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시가 야기하는 비애와 순수시가 규명하는 서정적 나약성과 대별되는 언어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⁸³⁾

‘이별 법’이 반영하는 슬픔과 눈물을 뛰어넘는 힘과 의지 또는 ‘죽는 법’을 통해 세계가 무화되는 절망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역설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의 계기는 첫 시집에서 성찰한 바에 비추어보면 내면의 선천적 기질로서 그 요인을 찾게 된다. 이는 홍윤숙 만이 할 수 있는 개별화된 특징이다. 우리시의 전통적 의식으로 인한 나약성에 대해 보다 강렬한 현대적 의식에 접목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은 「사는 법 2」에서 자주 사용하는 ‘~하라’의 경구적 언어의 역동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구는 명령적 의미로 몽환과 상상의 대비가 되어 시어에 힘을 실어준다. 「사는 법」 연작은 거의 명령형 종지법을 취하여 홍윤숙 시학에서 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현실적 삶에 대한 비판적 요소보다는 시정신의 승화를 보이는 의지적 특징이다. 「사는 법」 연작은 온갖 부조리하고 저돌적인 삶에 대한 경구적 어조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워요’의 서술종지형은 명령형으로 접근되고 이 ‘배움’의 대상은 대부분 역설과 반어로 점철되어 있어 그로 인한 강한 힘의 어조를 인식하게 된다. ‘배움’의 궁극적 지표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다. 약간의 잔혹성을 가미한 언어로써 시적 힘을 품고 있는 것이다. ‘열두 번씩 하늘 보고, 이를 빼고, 숨을 틀어막고, 살 내리고, 앓고, 동침 꽃고, 이별하’는 다각적인 삶의 양식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제시하면서도 가혹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힘의 어조를 보여준다. ‘입술 깨물고 눈으로 웃’는 대결 내지 충돌적 구조 역시 힘의 어조를 높이는 한 방식이 된다.

(4)홍윤숙 시의 구조에서 격음이나 경음 내지 파열음과 파찰음의 활용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성음에서 언어적 카타르시스와 만나는 통쾌한 힘의 요소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투박한 무성음의 단어 군을 통해서 느

83) 하현식, 앞의 책, 332면.

끼는 힘의 요소는 강하다.

강철의 태양에 살을 지지며
단단한 열매로 최후를 완성하며
끝내 한 덩어리 어둠으로 돌아가는 나무
땅 위에 뿌리박힌 天刑의 나무는
어찌하여 제 키보다 더 큰 별 받고 섰는지

일러다오
바람부는 별판에 밤을 지새는
우리들 시대에 알맞은 옷을
단단한 신들매를, 가슴에 毒을
어디서나 뿌리박고 집을 짓는
풀잎으로 풀꽃으로 변신하는 법
그들로 낮은 데로 숨어서 夜行하는 포복의 법
198×년 겨울나는 법

나직이 일러다오
아픔엔 아픔으로 담금질하고
고통엔 고통으로 밥을 먹이고
바람으로 영혼이 크게 앓으며
‘아름답게 미쳐서’ 새가 되는 법
- 「사는 법 3」 전문⁸⁴⁾

노을이 저녁 뜰에
샛빨간 유서를 뿌리고 돌아간다

꽃들이 아름다운 최후를 陳述하고
두꺼운 책장을 하나씩 닫는다

뜰은 남은 이야기를 지우며

⁸⁴⁾ 홍윤숙, 앞의 책, 『사는 법』, 567면.

커다란 손으로 墨畵를 친다

- 「꽃들의 생애 3」 일부⁸⁵⁾

「사는 법」 전체의 어조는 저돌성을 품고 있다. 화자의 신념을 의지적 어조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돌성은 현실참여시에서 볼 수 있는 비판적이라거나 풍자적 의도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시적화자의 단호한 내면의식을 드러낸다. 강한 자기 변론에 가까우리만큼 확고한 의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는 법 3」의 어조 또한 이러한 저돌적 어조의 한 모습이다. 특히 ‘일러다오’로 반복되는 명령형 종지법은 의지와 신념의 어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차용되는 격음 내지 경음에 연결된 음절이라든가 한자어로 제시된 강한 어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철’, ‘태양’, ‘최후’로 수반되는 한자어의 강도는 한자어 자체가 지닌 경직성에도 수반되지만 ‘ㄸ, ㅌ’ 등의 격음적 자음에서 힘의 어조를 수용한다. 또한 고유어의 음절 가운데서도 격음이나 경음이 수반된 낱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도 힘의 어조에 의한 문장의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끝’, ‘땅’, ‘뿌리’, ‘별판’, ‘꽃’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ㅃ, ㅌ, ㅍ’ 등의 경음과 ‘ㄸ’과 같은 격음이 작용하여 힘의 기능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강철의 태양’, ‘살을 지지며’, ‘어둠으로 돌아가는’, ‘뿌리박힌 듯’, ‘별판에 밤을 지새는’, ‘가슴에 독을’ 등등 가혹한 이미지의 결구로써 카리스마 넘치는 표현의 특성을 과시하며, 부분적으로 잔혹성을 띠는 표현을 즐겨 원용함으로써 힘의 어조와 만나기도 한다.

한편 단순한 낱말구조가 단독으로 잔혹한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힘의 어조에 편승하기도 한다. ‘야행’과 ‘포복’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야행’과 ‘포복’은 인간적 형태의 보편타당한 사람을 보여주기보다는 혹독함의 일면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3연의 ‘아픔엔 아픔으로 담금질하고’, ‘고통엔 고통으로 밥을 먹고’로써 삶의 가혹함을 드러내는 표현의 극치를 수렴하게 된다. 또한 ‘아름

⁸⁵⁾ 홍윤숙, 앞의 책, 『하지제』, 480면.

답게 미친다’든가 ‘새가 되는’ 경지는 역설과 반어를 통해 힘의 어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악의적 경지의 표현은 상징주의의 일단인 악마적인 의의와는 다른 차원으로 분별해야 한다.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악마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악의적 체제인 것이다.

「사는 법」 연작은 피상적인 힘의 어조를 통해 보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반면, 「꽃들의 생애」 연작은 악마주의적 정서에 입각한 언어구사로 시의 힘을 보여준다. 이 시편에서의 ‘꽃’은 존재로서의 의미이며,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커다란 손’의 소유자로 암시된다. 「꽃들의 생애」에서 악마적 근성은 사물을 항상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른바 ‘노을=유서’의 등식이라든가 ‘닫는다’, ‘지우며’ 등의 현상적 상황 제시 등이 이를 반증한다. ‘슬프지도 앓는 비극’, ‘무서움도 없이 어둠 속에 웃는다’, ‘아침이면 꽃들의 죽음을 잊어버린다’는 반어, 역설, 비극성에 결연된 언어군으로서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유발시켜 의식의 강렬한 에너지를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극치는 단조로운 풍경으로 비롯되기 보다는 ‘참담한 것은 손의 집행을 의구하지 않는다’는 개탄적 진술을 통해 절대자의 권위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탄식으로 힘의 정점을 드러낸다. 이는 홍윤숙의 신념적 의식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⁸⁶⁾

날지 못할 날개는 떼어버려요
지지 못할 십자가는 벗어놓아요
오척단신 분수도 모르는 양심에 치여
돌아서는 자리마다 비틀거리는
무거운 짐수레 죄다 비우고
손 털고 돌아서는 빌라도로 살아요
상처의 암실엔 침묵의 쇠 채우고
죽지 못할 유서는 쓰지 말아요
한 사발의 목숨 위해
날마다 일심으로 늙기만 해요

86) 하현식, 앞의 책, 329면.

형제여 지금은 다친 발 동여매고
살얼음 건너야 할 겨울 진군
되도록 몸은 작게 숨만 쉬어요
바람 불면 들풀처럼 낮게 누워요
아, 그리고 혼만 깨어 혼만 깨어
이 겨울 渡江을 해요

- 「사는 법 2」 전문⁸⁷⁾

홍윤숙은 「사는 법 2」의 말미에서 ‘아, 그리고 혼만 깨어 혼만 깨어 / 이 겨울 도강을 해요’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시편에서 홍윤숙은 현실을 ‘겨울’로 규정하여 비극적 역사의 삭막한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강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겨울’을 탈피하는 길은 ‘도강’으로 진술하며 ‘날지 못할 날개’와 ‘지지 못할 십자가’는 허위와 위선적 신앙의 단면으로 제시하여 사랑과 진실로 나아가는 의지적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내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 유토피아를 쟁취한다는 의지를 역설한다.

가령 ‘일심으로 늙기만 한다’든가 ‘다친 발 동여맨다’든가 ‘살얼음 건너야 한다’는 등 ‘도강’의 제반 조건을 제시하는 의의로서 힘의 어조가 강화됨을 볼 수 있다. ‘몸은 작게 숨만 쉰다’든가 ‘들풀처럼 낮게 누워서’ ‘도강’을 실행하는 주체적 행동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시적 어조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는 ‘혼만 깨어’ ‘도강’의 진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육체적 결함 때문에 ‘도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강한 정신력만 갖춘다면 유토피아를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의지와 절대자에 의존한 과거지향적 신념을 복합적으로 묶으며 힘의 어조를 상승시키고 있다.

2.고백적 어조

⁸⁷⁾ 홍윤숙, 앞의 책, 『사는 법』, 566면.

(1)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⁸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현상세계는 우리들의 표상의 산물이며 만물의 근원은 삶에의 의지이다. 이 의지는 인생고의 근원이며 모순투성이인 고로 부정해 버려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는 쇼펜하우어⁸⁹⁾의 염세적 근본사상을 드러낸 것으로서 철저하게 무신론적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문학사에서 의지의 시인 중 한 사람은 유치환⁹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환 역시 시에 있어서의 흐름을 의지에서 기인하되 허무와 덧대어 표출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무신론적 사유에 닿아있다. 이는 유치환의 시가 ‘신은 죽었다’고 주장한 니체⁹¹⁾의 허무주의에 탐닉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염세적 사상과는 반대편에서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시편들을 홍윤숙의 시 세계에서 만나게 된다. 홍윤숙의 시적 의지는 강한 유신론적 확신 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인의 의지가 외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역동적 어조로 나타나지만 내면화되었을 때는 고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한 특성이다. 어법상 특성의 다이내믹즘은 주제와 관계 없이 힘의 언어로 구축되지만 시의 의지는 의식 자체로 밝혀진다. 시인은 의지적 내면의식을 고백적 어조로 풀어내는 것이다.

‘말하기’의 한 형식이 기본인 시는 매체인 언어에 의해 표현된다. 이는 장점과 한계를 아울러 지니게 된다. 따라서 언어를 사이에 두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화자’이며 ‘청자’이다. 언어의 생명력은 언어를 통하여 말하는 이의 생명력이 투영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 이것은 듣는 이의 능동적 판단이나 행동을 요구하고, 혹은 신호체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명료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언어의 지시요소와는 관계가 없는 친교적 접촉 기능을 지향하는 데 긍정성을 부여한다.⁹²⁾

시의 고백적 어조는 간절한 심정적 열망을 통하여 내면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구조다. 그러나 홍윤숙 시의 고백적 형식은 심정 자체로서 언어화할

⁸⁸⁾ 쇼펜하우어, 최민홍(역), 『인생론』, 광음사, 1970.

⁸⁹⁾ 칸트 철학의 계승자. 주관적 관념론자. 세계의 객관적-실체적 존재를 부정, 현상의 세계는 나의 표상. 표상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기계적 인과성이 지배.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인식은 단지 세계의 장막만 파악할 뿐 가상의 세계를 제공한다고 주장. 세상의 본질(이데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이 보다 높게 작용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시나 음악, 미술 같은 예술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주장.

⁹⁰⁾ 오세영, 『유치환-휴머니즘과 실존 그리고 허무의 의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⁹¹⁾ 남경태,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 황소걸음, 2005, 초판 4쇄, 26면.

⁹²⁾ 김귀희, 앞의 논문, 100면.

따름이며 자기 성찰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기 성찰은 반드시 의지적 내면에서 일종의 참회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심정적 진술 자체만으로 고백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홍운숙은 내면의 세계에 정체되어 있는 ‘나’를 통하여 담담히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인칭 화자 지향의 고백적 어조인 것이다. 이는 개인적 삶을 주제로 한 초기 시와 후기 시에서 많이 드러난다.⁹³⁾ 강렬한 어조의 서술형 어미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시제를 통한 담담한 어조로 보여준다. 일차적인 구조로 서술형어미를 은근한 소망으로 투사하면서 내면적 의지를 드러낸다.

초기 시부터 절대자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던 홍운숙은 『일상의 시계소리』부터 기독교 시로 정착한다.⁹⁴⁾ 홍운숙 시에 드러나는 관념의 중심은 언제나 기독교 사상이다. 이 시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적 체제가 기독교적 인식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일부에서 반영되는 기독교 사상은 신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헤브라이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종교적 상념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목적의식으로 자라날 뿐이며, 사상과 정서가 서로 합일될 때 바람직한 시의 구조를 획득하게 된다. 홍운숙은 이러한 시의 기본적 의의를 확립하여 시의 정체성을 기대하게 하는 50년대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된다.

홍운숙의 종교적 의식은 이상향의 회귀사상⁹⁵⁾으로 모아진다. 그의 시적 논리는 현세는 ‘타관’이며 ‘내세’는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홍운숙 유토 피아정신의 핵심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공간이다. 종교적 의식은 일반적으로 관념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홍운숙의 시 세계에서는 귀의해야 할 미적 공간으로 규정되어 고백적 어조로 구체화되고 있다.

삶에 대한 긍정정신은 비전과 목표가 지상을 뛰어넘어 천상을 향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종교적 이데아를 관념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타관의 햇살」에 잘 나타나 있다. 지상과 천상의 대비법을 통하여 내세의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념의 틀을 절묘하게 뛰어넘는 형상화이다. 이러한 장점은 홍운숙 시가 지니는 개별적 시세계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한국 여류시사의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되는 한 요

93) 김귀희, 위의 논문, 10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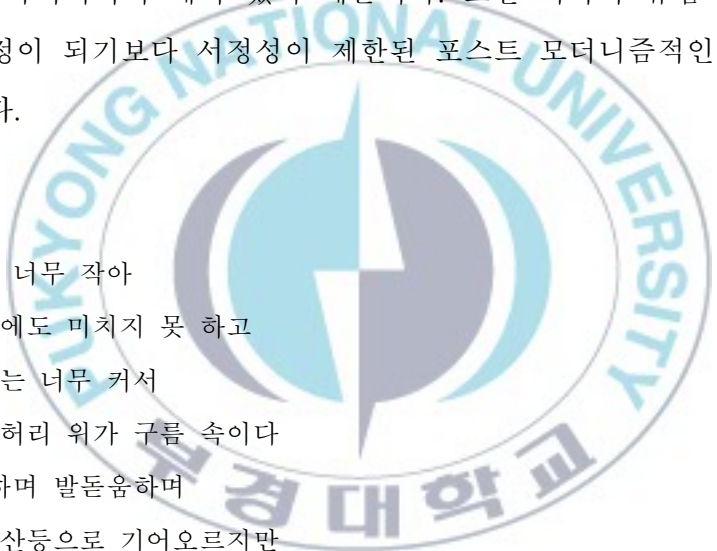
94) 김귀희, 위의 논문, 98면.

95) 김귀희 위의 논문, 99면.

인이 되면서 전체 한국시문학사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⁹⁶⁾

이러한 종교적 일탈의 고백적 발성법은 『하지제』에서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꽃들의 생애」 연작과 「하지제」 연작에서 반영되는 구조는 고도의 상상력으로 언어의 절대 경지를 구축해낸다. 홍윤숙 시의 고백적 어조는 감정에 치우친 감상주의적 위상을 넘어서서 해체와 집합의 신선한 구도를 이루게 된다. 진실과 윤리와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적 경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윤숙 시의 고백적 어조는 주로 숭고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30년대의 시문학과가 추구하는 순수서정과는 별개의 감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 배면에 은근한 목적의식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학적 규범이라 하더라도 순수서정이 되기보다 서정성이 제한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내 키는 너무 작아
그 무릎에도 미치지 못 하고
그의 키는 너무 커서
언제나 허리 위가 구름 속이다
발돋움하며 발돋움하며
드높은 산등으로 기어오르지만
그 길엔
길로 자란 들쭉레, 엉경퀴, 가시덤불
반눈만 팔아도 떨어지는 낭떠러지
몇 방울의 피로 찍은
맨 발자국들
날마다 숨이 찬
산길이다.

- 「내 키는 너무 작아」 전문⁹⁷⁾

밤새 잠들었던 혼 하나 깨우려합니다

⁹⁶⁾ 하현식, 앞의 책, 323면.

⁹⁷⁾ 홍윤숙, 앞의 책, 『실낙원의 아침』, 1087면.

밤새 더러워진 혼 하나 씻으려갑니다

밤새 쓰러졌던 혼 하나 일으키려갑니다

새벽별 내려와 어둠에 길 놓고

온 천지 헤매던 마음 잠시 돌아와 안식합니다

- 「새벽미사」 전문 98)

전자는 「십자가」 연작의 첫 번째 시편으로 ‘나’와 ‘그’의 비교법적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 ‘나’로서의 시적 화자는 ‘그’로서의 절대자에 대비되어 ‘그’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낸다. 그러나 「십자가」란 부제를 도외시한다면 ‘그’는 막연한 존경의 대상이며 시적화자로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이 시편이 수록된 『실낙원의 아침』이란 표제에서 시인은 고도의 신앙심을 표백하는 시편들만을 상제한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의 ‘그’는 막연한 존경의 대상이 아닌 절대자로 규명된다. 한없이 낮아진 언표로서 지극히 경건하게 절대자의 숭고한 미덕을 찬송하되 그 찬송의 고백적 어조는 은근하게 표명된다.

여기에서 대비적 기준으로 ‘키’를 제시하지만 ‘키=신장’의 의미망을 초월하고 있다. 이 ‘키’는 절대자의 숭고함의 극치이며 경건한 대상의 최고치로 규정할 수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전지전능과 ‘없는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의 고매한 존재로서 투사된다. 이러한 초월적 존재의 ‘그’는 ‘구름 속’으로 비유되어 초지상적인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그’에게로 지향하는 과정의 지난함을 ‘들쭉레, 엉경귀, 가시덤불’로 비유해서 나타내다가 하면 궁극적으로 ‘몇 방울의 피로 찍은 맨발자국들’로 생명구원의 표상임을 드러낸다. 고도의 비유적 장치로 작용되는 경건한 고백적 어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후자의 숭고성은 직접적인 경어체로 드러난다. ‘갑니다’의 지향점은 ‘새벽

98) 홍윤숙, 앞의 책, 『실낙원의 아침』, 1108면.

미사'에서의 절대자와의 조우를 위한 고백이다. '잠들고, 더러워지고, 쓰러진 혼'은 곧 시적 화자의 세속적 내면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시인은 시적 어조의 경건성을 정확한 언어로 나타낸다. '새벽별 내려와 어둠에 길 놓고'와 같은 진술에서 '길 놓고=밝히고'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도 '길 놓고'의 변용적 어조를 취함으로써 절대자의 초월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초월적 존재 의미를 직설적 어조로 접근하지 않고, 항상 은근하고 함축적인 고백적 어조로 형상화함으로써 더욱 경건하고 숭고한 가치지향성을 확보하게 된다.

홍윤숙 시의 구조는 기독교적 관념을 승화시키는 고백적 구조에서도 늘 특정한 관념에 매달려있게 된다. 그러한 운명론적 특성에 의해 비극성에 기댄 시편들은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다. 종교적 비전으로 마냥 비애에 잠길 수 없는 강인한 역동성과 숭고한 찬미의 은유만이 나타나 절대자의 존엄성으로 돌아가는 특징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이 시인의 비애가 갖든 고백적 요소는 비장한 감성으로 구축된 세계에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타관의 햇살」 연작에서 드러나는 내세에 대한 열망과 기대의 어조에서 다소 보이는 정도다.

뜰의 햇살이
눈부시게 밝은 날
안은 더욱 적막했다

그런 날 온갖 물상의 그림자들은
숨을 곳 없이 안으로 몰려와
구석구석 은밀한 그물을 치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어디서나
어둠을 지키며 조용히 비애를 켜는 등불이 된다

빛은 무심히

저리도 타관의 뜰에 희롱한다

이윽고 지쳐 어둠이 될 것을

- 「타관의 햇살 7」 일부⁹⁹⁾

이 시편에서 ‘타관’은 현세를 비유하고 있다. 이는 ‘선운사 절경’에서 구현하고 있는 ‘천상’과 대조되는 것이다. 시인은 ‘타관’을 ‘이 도시’ 「타관의 햇살 2」와 ‘객지’ 「타관의 햇살 5」로 변용하고 있다. ‘객지’의 나그네가 향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염원의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로 대변되는 시적화자는 현세를 이별하기 전의 타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천상을 향토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곧 성서 전체에서 구현되는 헤브라이즘의 관념으로 풀이된다. 이 시편들의 비장미는 곧바로 두고 떠날 공간에 대한 비장한 고백적 어조로 가득 차 있다. 내세에 대한 갈망이 비극적인 고백의 어조로 표현되는 것이다.

(2)시인의 내적 세계가 독자를 향해 던져질 때 독자는 제 3자가 아니라 시인에게 있어 하나의 객관적 의식으로, 시인 자신의 확대된 이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인은 경건한 물음과 고백을 독자에게 서슴없이 던질 수 있다. 마치 자신에게 묻듯이, 또한 이때의 독자 역시 시인의 고백에 지체 없이 공감하는데, 그것은 생소한 타인의 고백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내적세계의 상징적 제시임을 깨닫기 때문에 주저 없이 시인의 세계로 빠져든다.¹⁰⁰⁾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옅어지고

국화꽃 한 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흩어졌던 바람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99) 홍윤숙, 앞의 책, 『타관의 햇살』, 393면

100) 홍윤숙, 앞의 책, 『타관의 햇살』, 시작낙서, 467면.

가서 한 생애 버려뒀던 빈 집을 고쳐야지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무너진 담을 쌓고 벽을 바르고
상한 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애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 「가을 집짓기」 일부¹⁰¹⁾

바람아
취도 새도 모르게 밤새 스며와
깊은 밤 어둔 골짜기에
철 아닌 함박꽃 촌지에 피워놓고
잠든 귤전에 일찍이 듣지 못한
천국과 지옥의 교향악 일 악장
덤으로 틀어놓고
오색 무지갯빛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실타래로 목을 조이다
가슴에 굶은 쇠못 광광 난타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바람아
온밤 쇠 독으로 살과 혼 헤어지던
까맣게 절명하던 비명소리 들어봐

- 「바람아」 전문¹⁰²⁾

「가을 집짓기」는 ‘귀가’의 의지적 내면을 ‘돌아가야지’의 고백적 어조로 노래한다. 이때의 ‘가을’은 마지막 행의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의 계절로 규정되어 있다. 이 시편에서 ‘집’은 곧 ‘돌아가야’할 홍윤숙 특유의 유토 피아로써 ‘한 생애’를 마감하고 ‘누적된 병인을 찾아’내어 치유한 뒤에 맞이할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101) 홍윤숙, 앞의 책, 「사는 법」, 593면.

102) 홍윤숙, 앞의 책, 「사는 법」, 621면.

이는 이 시인의 15권의 시집 전체에서 관념화된 천국으로 ‘돌아가고자’하는 의지적 내면에 대한 고백이며 열망이다. ‘무너진 담을 쌓고 벽을 바르는’ 형식은 자기성찰로 재단할 수 있다. ‘한 생애 버려졌던 빈 집’을 통하여 자아회복의 강한 고백을 듣게 된다.

특히 ‘누적된 병인’이나 ‘내 생애 망가진 부분들’이 뒷받침되어 이중적 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돌아갈 집’의 재건이나 ‘수리’를 대비하여 시적 자아의 재건과 ‘수리’가 우선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통하여 집중된 목표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 세계의 투철한 내면을 성찰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시적 화자의 고백은 이러한 자기 확인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행위 자체로써 미래지향적 내면의지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뛰어넘어 충만감을 고취하는 것이다. ‘생애’에서 드러나는 비극적 속성에서 ‘수목으로 떠오르는’ 미래의 환상적인 세계에 기대어 현세의 질곡을 참고 견뎌 충만감을 만끽하게 된다.

「바람아 1」은 ‘바람’이란 간접적 오브제로 자기고백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바람’은 「가을 집짓기」에서의 시적 화자와는 상대적 관계에 놓여있다. 전자의 ‘나’는 자신의 성찰로써 유토피아에 다가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에서는 객관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자기 성찰에 나아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때의 바람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파괴적 존재로 형상화되지만 때로는 시적 화자로 하여금 삶의 진실 즉 이상향을 음미하고 깨닫게 한다.

‘바람’의 존재의미는 시간적으로는 ‘밤’, 공간적으로는 ‘골짜기’에서 군림하는 부정적 가치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가령 ‘철 아닌 함박꽃’을 피워냄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온다든가 ‘천국과 지옥의 교향악’을 ‘트는’ 행위로써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오색 무지개빛 실타래로 목을 조인’다든가 ‘가슴에 곁은 쇠못을 난타함’으로써 자기성찰과 회복을 저해하는 행태에서 시적 화자의 의지적 내면은 시행착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친다. 숨 가쁜 고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살과 혼’이 분리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의 이상향에 대한 열망과 고백을 간접적으로 토로하는 예인 것이다.

‘가을 집짓기’는 의지적 내면의 도달점을 ‘집’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집’은

이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으로 귀환하는데 대한 강한 열망이 곧 바로 고백의 어조로 결정된다.

「바람아」는 ‘바람’의 간접적 의식을 나타내는 대상을 통하여 이상향을 꿈꾸는 열렬한 소망을 객관화하고, 전자의 직접적 고백과 상대적 어조를 나타낸다.

(3)

이제는 나 아닌 누구라도
함께 떠나야 할 마지막 시간인데
나는 아직 물풀 같이 떠도는
기녀의 마음일까
그리움에 맴도는 나뭇잎 한 장
붉은 색지처럼 손끝에 돌리며
멋없이 멋없이 배회하는 날

외로움이 잔하면 거울을 보고
거울 속 눈물이 번져나는
희미한 얼굴

붉은 연지꽃처럼 진하게 칠하며
웃어도 보는
뉘라서 알까만 背律의 差心

보랏빛 새옷이랑 갈아입고
검은 머리 꽃이랑 꽂고
나비 같은 마음으로 나서보건만
짐짓 갈 곳이 없는……

- 「풍차」 일부¹⁰³⁾

돌틈 바위 밑
자갈밭 가르며 흐르는 산수

103) 홍윤숙, 앞의 책, 「풍차」, 158면.

그 사철의 산수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거니

냉랭히 빈 방에
빛바랜 紙窓처럼
향도 가시고

청옥빛 수련이 가라앉는 우물 밑에도
다스릴 바 없는 한 잎 갈이파리
떠도는 마음
모두 다 무심한 日月에 삭혀왔는데

무얼까 새삼 꽃 속에 숨은
蜜 같은 서러움
이 한밤에

사람도 신도 자연도 없는
아득한 세월들이
한아름의 마른 裸木 더미로
타오르는 밤

차라리 죄 하나
못 벗을 죄 하나 가슴에 짓고
마지막 목숨을 破戒하는
꽃으로 질까

- 「과계」 전문104)

‘배회’에서 표현되는 지표상실의 의미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기성찰에 대한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시의 타성에 빠진 삶을 탄식하는 측면도 드러내는 것이다. 3연에서 ‘거울을 보’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찰의 의미에 무관하게 ‘희미한 얼굴로 다가오는’ 존재의 희석된 의식으로 원하는 세계에 대한 희망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

104) 홍윤숙, 앞의 책, 「풍차」, 169면.

다.

4연에서 언급된 ‘배울’은 설정된 지표에 역행하며 퇴조하는 존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5연의 ‘나비 같은 마음으로 나서 보’는 노력 「풍차」 역시 의지적 내면을 고백적 어조로 드러낸 전형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때의 「풍차」는 미래지향적 지표에 닿지 못하는 ‘물풀 같이 떠도는’ 또는 ‘바람에 돌고 도는 장난감’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기녀의 마음’으로 관념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함께 떠나야 할 마지막 시간’에 연결되어 ‘한 생애’의 종언을 반영하는 의미망에서 시적화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의 전망을 염두에 둔 절망과 좌절감을 나타낸다. 추구하는 이상향에 다가갈 수 없는 내면을 고백하는 것과, ‘갈 곳이 없는’ 지표상실의 반복적 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절망의 극점에서 시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자기반성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거리’는 현상의 한 표상이면서 미래적 가치와 대치되는 예가 된다. ‘마음을 붙일 데 없는’ 의식의 저변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탈출이라는 상승된 의식이 설정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내 나이 젊지 않음’의 표출을 통해 이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지가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식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고백이 되어 있다. ‘붉은 양관 긴 층계’로 표현되는 현재에의 별리와 종언 후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이 ‘생각하는 날’로 의지화 되고 있다.

「과계」는 불교적 개념으로 종교적 계율을 깨트리는 의미이나 이 시편에서는 현세적 생의 포기로 규정할 수 있다. 현세에서의 ‘정갈한’ 삶이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山水같은’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비릇되고 있다. ‘빛바래고’, ‘향이 가신’ 존재의미에 대한 지표가 의지로 자리한다. ‘떠도는 마음’과 ‘무심한 日月’의 배면에는 허무적 자탄과 한계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4연의 ‘꽃 속에 숨은 蜜 같은 서러움’에서 잘 반영된다. ‘꽃’은 화자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표이며 ‘꽃’에 미치지 못 하는 ‘밀 같은 서러움’은 미래지향성에 대한 내면의식을 고백적으로 드러낸다. 이상향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적 자기탄식이다. ‘아득한 세월’을 대책 없이 소비해버린 ‘나목더미’로서의 ‘서러움’인 것이다. 시인은 ‘꽃’과 대척되는 ‘죄’를 통하여 장렬한

종언을 기대한다. 지극히 역설적 인과관계로 비례한 삶을 벗어나 이상향을 꿈꾸고 있다.

‘배회’를 통해 이상향을 기대하는 「풍차」와 ‘죄’로서 ‘꽃’에 다가가는 반어적 구조의 「과계」는 고백의 형태는 상반되지만 총체적 지향점은 같다.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함축적 의지는 서로 근접하므로 홍윤숙 시학이 현세적 절망감에서 미래지향적 이상향으로 한계를 벗어나는 구조적 특성을 이루는 것이다.

(4)

누이야 보아라
분홍빛 두 불이 일몰에 그늘지고
금은화 마른 잎 바람에 떨어지는
해 아래 나날의 아름다운 질서를
주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
하루 세끼 정결한 식탁의 빵과 소금
알맞게 길들은 바람과 햇빛도
눈물겨움을
이제는 만경창과 노 저어갈
젊은 뼈와 살 간 데 없어도
굽이굽이 어슬한 만추의 별판을
혼자서 돌아갈 귀로도 익숙하고
저무는 날의 찬 손을 잡아줄
추억과 적막도 은혜로이 빛남을
누이야 너는 알지

- 「지상의 양식 2」 일부¹⁰⁵⁾

마른 역새풀 자욱한 들판
하늘 구름발
고성능 미사일 폭격기로도
폭파할 수 없는
저 세계의 무한 적막

¹⁰⁵⁾ 홍윤숙, 앞의 책, 「태양의 건넌마을」, 684면

「지상의 양식 2」는 ‘해 아래 사는 죄’라는 부제가 붙은 연작이다. 이 연작은 전체적으로 신앙심에 대한 의지적 내면을 고백하는 어조로 「바람아」와 같이 개인적 대상을 통해 그 진의를 드러낸다.

가령 ‘젊은 뼈와 살이 없어도’ 시적 자아의 ‘추억과 적막이 빛난’다는가 ‘아담의 실수’와 ‘해 아래 사는 죄’가 ‘지상의 양식’이란 역설적 고백이 이 시편의 바탕이 된다. 진지한 기독교적 원리를 중심으로 비록 ‘해’를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인간이 짊어진 숙명임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다.

‘누이’와의 공동체적 의지로 진술됨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굴욕과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명분을 얻고 있다. 비록 늙고 병든 생애를 돌이켜보며 절망하지 않는 근거는 오직 절대자를 향한 신뢰와 이상향에 대한 신념임을 알게 된다.

그 신뢰와 신념이 한 생애의 보잘것없는 ‘추억’과 고독하기 그지없는 ‘적막’한 삶을 ‘은혜롭다’거나 ‘빛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하루 세 끼의 빵과 소금’의 약소한 ‘식탁’이 ‘눈물 겹’고 심지어 ‘바람과 햇빛’까지도 ‘알맞게 길들은’ 현재 삶의 조건으로 충족된 것임을 고백한다.

전반부의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빵과 소금’이 후반부에 와서는 ‘빵과 포도주’로 상승함으로써 살아있음의 경의와 존엄을 격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작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신뢰와 신념을 가질 때 더할 나위없는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발견하게 됨을 고백한다.

「지상의 양식」이 참담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어쩔 수 없는 자기가책에 의한 사유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뛰어넘어 절대자를 염두에 둔 의식에 사로잡힐 때는 한없이 아름다운 지상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목숨 다히 지키려 이마에 땀 흘려’ 지킨 신뢰와 신념에서 억누르는 콤플렉스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최후적 자기방어는 ‘소망’이며 그 ‘소망’은 신약 성서에 언급된 ‘과부의 엽전 두 톨’을 통해 구체화한다. 과부에게 ‘엽전 두 톨’은 전 재산이며 존재의 전부인 것이다.

106) 홍윤숙, 앞의 책, 「조선의 꽃」, 1207면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화려함과 근엄함과 양적 우세성이 ‘소망’을 지탱해 가는 단서가 될 수 없다. 내적 충실성을 통해서만이 이상향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역설적 논리의 고백적 표현이 된다. 이는 신약성서의 또 다른 교훈에서 드러나는 ‘좁은 문’에 대한 관점과 일치한다. 이른바 세속적 가치관과 차별화되는 차원 높은 천상적 사유로써 지상의 ‘영육’과 ‘고락’을 통해 삶의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시편에서 지적되는 결정적 콤플렉스는 ‘아담의 실수’에서 시작된다. ‘실낙원’의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대 ‘해 아래 사는 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실낙원’의 비극적 기록으로 인해 저항적 의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존재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지상의 양식’이 주는 충만함을 수용한다.

외형상으로는 체념적이고 풍자적인 인식을 던지고 있으나 이상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수반한 초월적 가치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사는 죄’는 당위적 가치이며 나아가서 의지적 내면의 한 양상으로 떠오른다. 자기 극복, 또는 자기실현까지도 꿈꾸는 대역전의 사유이다.

객관적 대상을 통해 의지적 내면을 고백하는 양식과는 달리 「억새」와 같이 제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의지적 내면을 고백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억새」는 단 여섯 행의 소품이지만 내적 집중력은 사유의 그릇이 된다. 「조선의 꽃」 연작의 일환으로 선보인 「억새」는 어감상의 의지적 인식과 더불어 시각적 효용성으로 드러나는 식물적 속성에서 의지의 일면을 함축한다.

일차적으로 ‘마른 억새풀’은 그 자체의 시각적 풍경에서 ‘엽전 두 톨’이나 ‘좁은 문’이 반영하는 역설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성능 미사일 폭격기’로 ‘폭파할 수 없는’ 요령부득의 상황으로 의지적 내면을 드러낸다. 특히 ‘무한적막’의 농도는 시각적인 ‘억새’의 함축적 가치를 더욱 밀도 높게 진술함으로써 단말마의 고백적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이 일인칭 화자의 고백적 진술이다. 이는 개인적 삶을 주제로 한 초기 시와 후기 시에서 많이 드러난다. 이들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초기와, 관조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점인 후기에서 연민의 시선으로 자아를 바라본 것이다.¹⁰⁷⁾

107) 김귀희, 앞의 논문, 101면.

3. 현실비판적 어조

홍운숙은 우리의 비극적 역사와 파행적 정치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방했던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시는 사색적이고 내면 탐구적인 경향이 주조를 이루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적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회비판의식은 그의 특별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¹⁰⁸⁾ 학생참여운동이나 조부의 만세사건, 대동아 전쟁, 6.25전쟁, 5.18광주학생운동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격변과 깊은 연관이 있다.

홍운숙 시인에게 있어 5.18 광주사태는 시대적 고통의 폭발점이 되었고 모든 질서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과 어둠이었다. 목을 누르는 거대한 암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인은 소리치며 뿔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뛰어야 제자리이건만 살기 위해선 소리치며 뿔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한다.¹⁰⁹⁾

대표적인 현실비판적 어조는 「사는 법」 연작에서 잘 드러나지만¹¹⁰⁾, 홍운숙의 시에서 시의 현실비판 인식은 직설적이기보다는 함축적 의미로 나타난다. 시적 미감에 충실하던 시인의 삶의 자세가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에 부딪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사적 언어구조로 드러난 것이다. 홍운숙은 시대에 대한 극렬한 비판보다는 은밀하게 풍자와 해학의 호소력을 발휘한다.

(1) 풍자적 어조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원시의 숲에

108) 엄경희, 「홍운숙 시인의 삶과 시 정신」, 『송실어문학회』, 2001.

109) 박상천, 「홍운숙론-시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1권, 1991. 357면,

110) 박상천, 위의 논문, 957면.

사내들을 부르던
여자의 비음 같은
교태가 아니었을까

젖은 목덜미에
반짝이는 목걸이
귀밑에 하늘대는
琥珀의 귀걸이
그것들은 모두
나비를 부르는
꽃 속의 密
꽃가루 같은
유혹의 지분이 아니었을까

거울 속에 어른대는
실바람처럼
내 안에 흔들리는
또 하나의 '나'
풀잎 같은 '나'를 위해
장식은
곱게 물들이는
가을별이다

- 「장식론 3」 일부¹¹¹⁾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떨어버릴 때
씻은 그릇처럼
정결해질까

덤불진 넝쿨
앞을 떨구고

111) 홍윤숙, 앞의 책, 「장식론」, 251~252면.

후미진 골짜기
빛은 스며도
겨울 나무숲 바람에
떠는가

끈질긴 사슬
영건 뿌리 밑 속으로
비쳐오는
고독의 눈
인생의 눈
절절이 깊어가는
살 속의 정적

- 「장식론 4」 일부¹¹²⁾

『장식론』이란 표제의 시집에 수록된 「장식론」은 연작으로 된 시편이다. ‘장식’이란 꾸밈이라는 고유어로 풀이되지만 ‘론’이라는 관념적 어휘가 풍자적 인식을 갖게 한다. ‘장식’이란 순수성을 잃어버린 관점으로 다가갈 때 다분히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첫 행 ‘장식을 하나씩 다’는 행위를 ‘여자의 교태’로 규정짓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었을까’의 의문형 서술형은 강한 긍정이다. ‘여자의 교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의 교태’라는 표현의 강조법인 것이다. ‘장식=여자의 교태’의 비판적 어의가 강화된 풍자가 드러난다. 이는 시적 여성화자의 비애를 투사하기도 한다.

‘사내를 부르던’ 매력적인 ‘장식’을 해야 하는 일은 ‘나비를 부르는 꽃가루’ 또는 ‘유혹의 지분’으로 ‘아니었을까’를 통해 2연에서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즉 ‘나비를 부르는 꽃가루이다’라든가 ‘유혹의 지분이다’를 강조하는 어조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의문형으로 강한 부정을 기대하는 어조를 통하여 시적 화자는 격렬한 비판과 풍자의식을 보여준다.

‘장식’을 통해서 ‘또 하나의 풀잎 같은 나’를 발견함으로써 위선과 허위에 신음하는 존재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장식’의 속성으로 제시되는

112) 홍윤숙, 앞의 책, 「장식론」, 254~255면.

‘풀잎’을 통하여 나약하고 카리스마를 내재하지 못한 존재의 비극성을 자탄하고 비판하고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식’은 ‘쉽게 물들이는 가을 별’으로 비유되어 독자적 세계관의 권위적 존재를 위해 기생하는 나약성을 풍자하는 어조로 나타난다.

‘장식’은 ‘눈짓’과 ‘웃음’과 ‘빛깔’과 ‘향’과 ‘사랑의 말들’로 4연에서 비유의 자리에 놓이면서 ‘눈짓’과 ‘웃음’은 풍자적 기능으로 활용되지만 ‘빛깔’과 ‘향’과 ‘말들’은 미적 시각으로 조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5연에서 ‘장식’을 ‘오산하는 인생’의 근거로 규정함으로써 결정적 비판의 표적이 된다. ‘장식’을 잘못 계산된 삶의 단서로 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시내’에 대한 ‘여자의 오산’이며 순수한 의식에 대한 ‘인생의 오산’이라고 결론지어져 비판적 어조를 취하게 된다.

한편 후자에 오면 ‘장식’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뉘앙스를 풍긴다. 이번에는 ‘장식을 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장식을 떨어버리는’ 행위로 ‘장식’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관점을 구축한다. ‘장식을 떨어버리는’ 결과의 ‘정결한 그릇’은 전자와 전혀 다른 어감을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적 어조가 나타난다.

‘정결해질까’의 의문형은 물론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결론을 유도해낸다. 이는 ‘장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그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장식’의 부정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 여부의 이슈에 연관되어 의도의 지형점이 이탈되어 버린다.

‘장식’의 부정적 요소가 회복되는 어의로 전환되어 또 다른 ‘장식’에의 부정적 인식이 성취되고 있다. ‘떨구어진 잎’과 ‘골짜기의 빛’이 ‘떨어져버린 장식’에 비유되어 ‘겨울나무 숲’의 ‘여자’에 대한 본질 내지 자기회복의 문제를 거론한다. ‘떨군 잎’과 ‘골짜기의 빛’이 ‘겨울나무 숲’을 따뜻하게 감싸지 못한다는 비판적 의식이 배면에 깔리게 된다.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존재의미는 자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 ‘장식’은 거두어진 다 하더라도 ‘고독의 눈’ 내지 ‘인생의 눈’이 되어 ‘살 속의 정적’으로 비판된다. 이는 이 시편의 말미에서 지적한 ‘장식’을 ‘한 생애의 진한 아픔’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인 것이다. ‘장식’이 ‘여자의 유혹’으로 환치되는 소박한 풍자와 비판과는 다른 방향에서 직면한 현실과의 대결 속에서 비판과 풍자의 날을 세운 예를 찾

아볼 수 있다.

우리는 어디서나 떠나고 있다
더러는 물이고
더러는 바람으로
때 묻은 식기
벗어놓은 평상복에,
반신불수로 끼어 있다가
날이 새면 잃어버린 열쇠구멍으로 빠져 나간다

아무도 웃지 않는
쓸쓸한 아침식탁
싸움도 없는 미움과 이별
공허한 기도와 말씀들이
나날을 日蝕하는 물을 돌아
고독한 하오의 바다로 간다

바다에선
날마다 추억을 실은 배가
물을 떠나고
떠나보낸 추억만한 비애가
다시 실려온다
사람들은 줄 지어 모여서서
저마다 무거운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고
미지의 수확을 기다린다

- 「희망」 일부¹¹³⁾

육고간 목관 위엔
시퍼런 칼날이
사계절 피를 물고 누워있었다

113) 홍운숙, 앞의 책, 「타관의 햇살」, 401면.

저녁이면

한 마리 소의 겹질과 뼈와 살들이 찢겨져
검붉은 천장에 조각난 기폭처럼 매달려갔다

사람들은 다투어 피가 지는 살점들을
한 덩이씩 썰어갔고
홍건한 유혈 속에 되도록 진하고 처절한
피의 육피에 용솟음쳤다

그즈음 낮익은 도시의 하늘엔
신의 깃털 같은 몇 점 구름이
저마다 장밋빛 노을을 물고있었다

목숨이 한 점 살점도 없이 소멸하고
검게 빛나는 육고간 천장에
차디찬 쇠고리가 흥기처럼 걸릴 무렵

인간의 식탁에선
한 덩어리의 죽음을 씹는
차고 단단한 차돌 같은 이가
문명의 밤을 웃고있었다
금니를 번쩍이고 웃고있었다

거리 어디에서나
윤락한 국화가
긴 밤을 요란히 웃고있었다

- 「비정」 전문114)

예시한 「희망」과 「비정」은 서로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는 시편들이다. ‘어디서나 떠나고 있는’ ‘희망’은 곧 ‘절망’을 제시한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희망은 아름다운 주검으로 변신해갔다’라고 끝맺음으로써 ‘어디서나 떠나고 있는’ 절망의 양상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의 극

114) 홍운숙, 앞의 책, 「타관의 햇살」, 406~407면.

단이 ‘비정’으로 드러난다.

전자의 서술로 후자의 묘사가 보여주는 처절한 절망적 상황을 수렴한다. 이와 같이 시인은 ‘쓸쓸한, 공허한, 고독한, 무거운’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시대가 직면한 절망의 단면을 직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 비판의 날은 매우 무디고 둔탁하여 직접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이 떠나는 절망적 상황으로 시적 화자가 의도하는 풍자나 비판의식이 느껴질 뿐이다.

「비정」에서는 ‘육고간 목판 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실이 빚어내고 있는 처절한 절망적 상황을 객관화한다. ‘사계절 피를 물고 누워있는 칼’이라든가 ‘뼈와 살들이 조각난 기폭처럼 매달려 있’는 풍경을 통해 시대가 부양하는 절망적 처절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차고 단단한 이’의 표현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암시해준다. 독재자의 전횡에 희생된 절망적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마지막 연의 ‘거리 어디서나 / 윤락한 국화가 / 긴 밤을 요란히 웃고 있음’을 통해 정치적 암흑의 단면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

홍윤숙의 현실인식은 시집 『하지제』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시대적 격동기를 거쳐 오면서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던 시인은 격동기의 현실에 대해 전의에 대한 분노의 육성을 높이고 있다.

아들아

가시철망에 찢어진

아침 햇살을 보라

유혈하는 햇살의 비명

비명을 분쇄하는

바람의 포성을 보라

긴 밤

불면의 겨울 숲을 헤쳐 나온

기아의 새

새들이 때 지어 사살되는 건

그들이 매도하지 않는 날개 때문이다

이아침 살아남아
살아남아 노래하는 건
오직 너,
너의 팽팽한 가슴
근육마다 튕기는 고발의 탄성

아들아
오늘도 무거운 장충엔
충분한 실탄
배낭엔 꿈도 가득 채웠는가

포위망을 뚫고
가시철망을 끊으며
녹슨 빗장을 쫓히는 손
내일을 여는
확신의 손에
끝없이 밝은 집단의 햇살이 된다

어디서나 쏟아지는 함성이 되고
어디서나 산화하는 꽃잎이 되는
우리들 시대의 아들아

너 가는 천지
굽이쳐 강물로 흐르는 내 사랑은
아픈, 맨발의 백의종군
날마다 희디흰 봉대를
가슴에 감는다

- 「우리들 시대의 아들아 1」 전문¹¹⁵⁾

마루 아래 벗어놓은 한 켄레 군화

115) 홍윤숙, 앞의 책, 「하지제」, 505~507면.

간밤 어느 후미진 골짜기에
 젊은 피 뜨거운 밤을 밝히고 왔는가
 누런 황토 흙 짙 벌어진 앞부리
 내가 묻혀온 이 땅의 흙빛갈이
 피처럼 아프구나 내 아들이
 강바닥 진흙구덩이 지뢰 묻힌 휴전선 155마일
 죽음과 삶의 갈림길 밟고 온 너
 벗은 발이 풀잎처럼 밤이슬에 젖어 슬픔 어미들
 날마다 등허리 벗어지도록 켜어진
 천리 국토의 무게 자유의 중량
 온밤 잠들지 않기 위해 밤을 밝히는 시대의 과수꾼 작은 별들아

- 「우리들 시대의 아들이 2」 일부¹¹⁶⁾

전자는 전체적으로 9연 33행에 달하는 비교적 호흡이 긴 시편이다. 홍운숙은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시편들을 압축의 묘미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지 않고 비판과 풍자의 어조를 방임의 상태로 끌고 간다. 감정에 기대어 비판적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다. 시편의 배경은 휴전선이며 그 처절한 민족대치의 국면을 지탱하는 대상은 ‘아들’이다. 물론 이 ‘아들’은 이 땅에 태어나 백척간두에 선 조국을 목숨 바쳐 지키는 우리의 국군들이다.

시적 화자는 1연에서 조국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을 ‘가시철망에 찢어진 아침햇살’로 형상화하고 있다. 155마일에 걸쳐 조국의 허리를 분단하고 있는 휴전선의 비극적 정경을 ‘햇살’의 참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의 묘미는 곧바로 현실 비판적이면서 고발적인 어조에 닿아있다.

2연에서 시인은 ‘바람’을 제시하여 민족의 처참한 비극성에 저항하는 존재로 부각시킨다. 비유적으로 ‘바람의 표정’은 ‘아들’의 굳건한 의지를 대변한다. ‘비명을 분쇄하’는 주체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민족분단의 비극을 거둘 존재가 유일한 ‘아들’로 은유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3연의 ‘기아의 새들’은 ‘그들이 매도하지 않는’ ‘날개’로 인하여 오히려 비극성을 초월하기 보다는 ‘아들’과 대비되어 ‘사살’되는 운명에 처해진다.

그런 관계에서 ‘바람’과 ‘날개’는 대척되고 있다.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아

116) 홍운숙, 앞의 책, 「사는 법」, 655면.

들'은 '고발의 탄력'으로 조국이 직면하고 있는 비극을 퇴치하는 늠름한 모습을 과시하게 된다. 그리고 '배낭에 꿈도 가득 채운' '아들'로 부양되어 직면한 비극을 물리칠 의지의 소유자로 찬미의 고삐를 다잡는다. 마침내 6연에서 '아들'은 '녹슨 빗장을 짓히는 손'으로 싸워 이김으로써 '내일을 열어' 가시철망에 찢어진 햇살을 끝없이 밝히는 국면으로 전환시켜 비극의 종언을 도모하게 된다.

시인은 8연에서 '아들'의 투쟁의지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노래하는 동시에 9연을 통하여 시적 화자의 굳건한 의지를 다짐하게 된다. '어디서나 산화하는 꽃잎'으로 인하여 '희디흰 봉대를 가슴에 감'는 시인의 결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아들'의 의지적 투쟁과 지적 화자의 결의는 비극적 현실을 비판하는 언어적 요인이기보다는 행위적 요인의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들 시대의 아들이 1」이 민족분단의 비극에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면 「우리들 시대의 아들이 2」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방위의 지표와 '아들'의 고난과 조국파수의 꿈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아들'의 희생이 가져다준 평화와 '우리시대'의 희망과 더불어 무명용사로 장렬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민족분열이 만든 참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홍윤숙 시에 있어서 비판과 저항은 직설적으로 표면화되기 보다는 부정적 사례를 드러내어 비판적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나아가서 단순한 조국방위의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조국의 평화와 희망을 저해하는 상대를 향한 강한 비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용사'로 산화한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무한한 위령의 전제와 아울러 '아들'의 희생을 불러온 상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비판적 효용성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0여행에 달하는 장시의 형태에서 '그 나라에서도 / 여름은 서른 번도 더' '기쁨'과 '아픔'을 꿈꾼다든가 '그 나라에서도'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꿈'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반복 내지 도치의 기법으로 장식한 결미는 강조법의 어조를 보여준다.

여태껏 시인의 생애는 평화보다는 전쟁, 풍요보다는 결핍, 자유보다는 부자유와 제약에 더 많이 처해있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불행과 혼란 속에서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슬픔과 울분과 반항을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받아들이는 데 곁들여진 것

같다고 시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홍윤숙의 시편에서는 풍자나 비판의 날을 직접적으로 세우고 있는 시편들을 만나지는 못한다. 시인의 정적 가치를 분별해내는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홍윤숙 시인 특유의 시적 순수성에 대한 고집과 의지에서 읽어야 할 부분이다.

(2)해학적 어조

홍윤숙 시에서 만나는 해학적 어조에도 다른 시들에게서 보이는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시창작의 구조적 한 특징이 되는 해학적 어조는 작품성의 질적 저하를 무시할 수 없다. 해학적 어조는 숭고성이나 절대미학이 표방하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목적의식에 닿아 있는데 홍윤숙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학적 어조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

오늘 배부른 자 내일은 굶주리고
오늘 웃는 자 내일은 슬픈 일로 울게 된다고요
예수님 공갈하지마세요
아프리카 어린이들 나면서부터 굶주리다 굶주리다 죽고
부자는 망해도 여전히 벤츠 몰고 해외 유람 간다구요
차라리 태어날 때 나라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을까요

- 「선상의 말씀」 전문¹¹⁷⁾

있는 대로 다 주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벨도 쓸개도 다 뽑아버리고
바보천치처럼 살라구요 참 큰일났네요
겨우겨우 예수님 발밑에 다가가다가도
그런 말씀 한 방에 그만 달아나고 싶은 것 아시나요
차라리 또 한 번 죄인의 굴레 쓰고 말지요

- 「원수를 사랑하라」 전문¹¹⁸⁾

117) 홍윤숙, 앞의 책, 『내 안의 광야』, 1394면.

118) 홍윤숙, 앞의 책, 『내 안의 광야』, 1395면.

「선상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서 5장의 팔복에 연결된 내용을 토대로 삼고 있다. ‘오늘’과 ‘내일’의 시간적 대칭을 통하여 ‘배부름’과 ‘굶주림’, ‘우는 자’와 ‘웃는 자’의 대조적 결과에 의거한 해학적 언표로 나타난다. 이는 성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나타내는 어조로 ‘공갈’이라는 비시적 언어로 해학의 절정을 보여준다. 후반부의 구조 또한 역설적 어조로 해학을 강조하며 차별의식의 모순점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해학적 어조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현대시 특유의 산문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나라와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굶주림’을 모면하려는 논리 자체가 해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념 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단지 해학적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오브제로 성서의 정신을 활용하여 시적범위를 펼쳐나간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서적 근거를 순응의 원리로 사용할 수 없는 저항성을 거쳐 체념으로 돌아와 진리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바보천치’의 삶을 거부하고 ‘죄인의 굴레’로 돌아가는 심정적 뒤흔들음을 통하여 강한 해학적 어조의 특성을 환기시켜준다. 성서적 교훈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해가는 것으로 진실된 삶을 표현한다.

특히 ‘그런 말씀 한 방’이 시사하는 해학적 표현은 시적 정서의 거리감을 갖게 되어 오히려 해학성의 절정을 맛보게 되기도 한다. 역시 성서가 함축한 진리를 도전적 자세와 맞서서 싸우는 해법으로 접근하여 해학성을 명확히 끌어올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가 밝히는 의의는 ‘예수님 발밑’이라는 심증을 뒤편에 숨기고 있는 것이다.

IV. 홍윤숙 시 어조의 특징

인간의 개성(identity)은 시간의 경과 가운데 형성되고, 또 새로운 개성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해체의 과정을 겪는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간은 자유에 처단된 존재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

적은 개성의 완전한 초월이다. 이 초월을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신의 경지나 열반의 경지며, 초시간적 차원이다. 이처럼 개성의 끊임없는 형성과 초월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적 개성과 다양한 문체가 나타나고, 따라서 다양한 어조가 가능해진다.¹¹⁹⁾

문학은 그냥 써진 채로 있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어조로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본래 모든 말과 글은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연관 속에서 성립되며, 그 말(글)의 뜻은 그러한 관계를 세밀히 파악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문맥이라는 것도 실상 그러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학을 말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의 문체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나 모든 독자들에게 대해서 쓴다는 것은 오류며, 이것은 일종의 전체주의다. 그리고 시인은 평생 하나의 목소리만 가지고 시를 쓰지 않는다. 미당의 초기시의 소재나 독자가, 후기시의 소재나 독자와 다르듯이 그의 시적 개성도 결코 고정적일 수 없다.(그러나 이것은 ‘미당 특유의 목소리’라는 총체적 시적 개성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시인의 자유는 세계의 상이한 사건들에 대한 ‘자기’의 다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는 다양한 어조의 태도로써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자유를 보여준다.¹²⁰⁾

강조된 음표상의 형태와 내용이 결합되어 내적이고 서정적인 긴밀성의 효과가 나타난다. 어조 그 자체의 주된 특징은 시의 효과를 위해 말해지는 소리의 주된 특질에 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학자의 음향·음운분석이 눈보다 귀에 적절한 소리의 종류를 분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리듬과 이미저리는 어조에 의존한다.¹²¹⁾ 어조는 자아를 향해 발화하는 내면적 자아의 목소리이다. 표면적으로 자신을 향한 독백과도 같아서 시인에게 감정 정화 및 성찰과 내적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며 화자와 독자가 하나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¹²²⁾

홍윤숙 어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객관적인 지표¹²³⁾라기보다는 주관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119) 김준오, 앞의 책, 263~264면.

120) 김준오, 위의 책, 264면.

121) 김준오, 위의 책, 272면.

122) 김영연, 「신동엽 서정 단시의 어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5.

의 시는 고백적 진술의 성격이 강하다. 내면의 고백적 어조가 간절한 심정적 열망을 통해 드러난다. 고백적인 담담한 어조로 급박한 시대를 살피는 그의 시 세계는 다분히 관조적인 고백체의 어조라 할 수 있다. 이는 출발기 시로부터 시작되는 화자지향의 일인칭 진술인 시에서 더욱 드러나는데, 일인칭 중심의 화자는 시인의 경험적 자아의 모습을 나타낸다.¹²⁴⁾

야콥슨의 언어전달 체계이론과 김준오가 제시한 어조 유형, 그리고 시에 사용된 리듬, 이미지, 어휘, 어법 등을 통해서도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C. C. Colwell의 견해, 운율과 문법적 요인, 어휘적 요인과 토착어, 관념어, 방언, 비속어, 특정계층의 언어에 따라 어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R, W, Boynin의 시에 대한 소개, 강현국이 분석한 형성기저 이론에 근거하여 홍윤숙의 어조를 고찰하였다.

홍윤숙 시 내적으로 어조를 창조하는 시적 장치를 살펴본 결과 그의 시 세계는 언어적 역동성을 통해 서정적 나약성을 초월하고, 내면의 고백적 어조로 간절한 심정적 열망을 드러냈으며, 풍자적 어조와 해학적 어조로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는 현실 비판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윤숙 시 어조의 특성 중에서 힘과 반복의 역동성은 대결과 충돌적 이미지, 유성음이 아닌 무성음, 즉 경어나 한자어의 추상명사를 취할 때 나타난다. 정서로부터 벗어난 비감각적 언어에서 힘을 느낄 수 있으며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 등의 서술종지형을 통하여도 힘이 야기된다.

또한 첩어구조를 지닌 의성어와 의태어라든가 준첩어의 상반된 반복적 구조에서 강렬하게 투사된다. 대체로 경구법은 명령형에 수반되어 힘의 언어를 나타내며, 성층구조적인 측면으로 차곡차곡 쌓인 계층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전체구조를 역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홍윤숙 시에 있어서 힘의 어조는 여류답지 않은 남성적 건강성을 발휘하여¹²⁵⁾ 제재가 지니는 부정적 의미도 미래지향적 의지로 인해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신념을 통해 긍정정신의 시적 어조를 기대하게 된다.

또한 홍윤숙 시 어조는 역설적이거나 반어적 구조가 힘의 속성을 지닌 언어로 구현되고 있다. 낱말이 지니는 일체의 서정성이 배제된 의미적 단

123) 권혁웅, 앞의 논문, 137면.

124) 김귀희 앞의 논문, 100면.

125) 하현식, 앞의 책, 329면.

호함이 역동성으로 작용하여 힘을 실어준다. 홍윤숙 시 어조의 지향점은 남성적 어조로서 강인한 의지와 신념의 내면의식을 관통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어체에 의한 시적 전개방식을 볼 수 있다. 경어체 구사방식은 건조한 정감을 살리려는 효용성을 가지지만 홍윤숙 시학에서는 오히려 정감적 경계를 넘어서서 남성적 어조를 강화하려는 심증을 갖게 된다.

또한 굵직한 서술종지형의 어감은 시 언어의 힘 자체로 환기되고 있다. 과거지향성은 과거시제 서술형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며, 미래지향성 또한 미래시제 서술형을 통하여 보여준다.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서정적 요소가 배제된 언어만을 취하여 힘의 원리를 구사한다. 격음 내지 경음으로 구사된 언어특성을 살려 힘의 시학의 한 전형을 형성하고 있다. 슬픔과 눈물을 뛰어넘는 힘과 의지로 절망이 아닌 강인한 정신력과 역설로 힘을 보태고 있다.

다음으로 홍윤숙 시 어조에서 내면의 고백성을 살펴보았다. 염세적 사상과는 반대편의 시들은 강한 유신론적 확신 위에서 시적 의지를 드러낸다. 다만 이 시인의 의지가 외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역동적 어조로 나타나지만 내면화되었을 때는 고백적 어조의 특성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내면의식을 경건한 시적 어조로 나타낸다. 직접적인 경어체로 절대자와의 조우를 위한 고백을 하며, 화자의 세속적 내면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홍윤숙 시에 드러나는 관념의 중심은 언제나 기독교 사상이다. 시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적 체제가 기독교적 인식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홍윤숙의 종교적 의식은 이상향의 회귀사상으로 모아진다. 그의 시적 논리는 현세는 ‘타관’이며 ‘내세’는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홍윤숙 유토피아정신의 핵심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공간이다. 종교적 의식은 일반적으로 관념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홍윤숙의 시 세계에서는 귀의해야 할 미적 공간이 고백적 어조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속적 가치관과 차별화되는 차원 높은 천상적 사유로 삶의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다.

홍윤숙은 내면의 세계에 정체되어 있는 ‘나’를 통하여 담담히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초기 시와 후기 시에서 많이 드러나는 일인칭 화자 지향의 고백적 어조는 강렬한 어조의 서술형 어미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시제를 통한 담담한 어조로 보여준다. 일차적인 구조의 서술형어미가 은

근한 소망으로 투사되면서 의지적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시에서의 고백적 어조는 간절한 심정적 열망을 통하여 내면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구조다. 그러나 홍운숙 시의 고백적 형식은 심정 자체로서 언어화할 따름이며 자기 성찰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기 성찰은 의지적 내면에서 일종의 참회형식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심정적 진술 자체만으로 고백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현실비판적 어조를 살펴보았다. 홍운숙은 우리의 비극적 역사와 파행적 정치상황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던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적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사회비판의식은 학생참여운동이나 정신적 격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시적 미감에 충실하던 삶의 자세가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에 부딪치면서 반사적 언어구조를 통해 현실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홍운숙 시의 어조는 시대에 대한 극렬한 비판보다는 은밀하게 풍자와 해학의 호소력을 발휘한다. 홍운숙 시에 있어서의 비판과 저항은 직설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사례로 비판적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태껏 시인의 생애는 평화보다는 전쟁, 풍요보다는 결핍, 자유보다는 부자유와 제약에 더 많이 처해있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불행과 혼란 속에서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슬픔과 울분과 반항을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이며 비판적으로 길들여진 것 같다고 시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순수성을 고집하는 홍운숙의 시편에서는 풍자나 비판의 날을 직접적으로 세우고 있는 시편들을 만나지는 못한다. 시인은 정적 가치를 분별해내는 안목으로 비판적인 의도를 내면화시키고 있다. 홍운숙 시의 해학적 어조는 숭고성이나 절대미학이 표방하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목적의식에 닿아 있다. 질적 저하의 한계를 보여주는 해학적 어조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현대시 특유의 산문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운숙 시의 어조는 기존 여성시의 나약한 틀을 벗어나 남성적 역동성으로 활착되어 있어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남성시로 읽을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힘 있는 작품이 많다. 또한 귀의해야할 미적공간의 내면의

식이 고백적 어조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기독교 사상에 심취한 나머지 관념성이 두드러져 작품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조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절대언어 미감을 무시한 풍자적 시학에서는 과도한 관념어나 한자어 사용으로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홍윤숙 시인의 특징인 언어미학의 절정을 일부분 무너뜨리고 있다. 후기로 갈수록 완화된다는 했으나 특히 어려운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2년 여간 침묵을 지켰던 시인은 ‘시인세계’ 겨울호(통권 30호)에 「길을 건다가」 등 다섯 편의 신작시를 수록했다. 함께 수록한 산문에서 “세 번의 수술과 크고 작은 질환으로 병상에 갇혀 지낸 이 년간 나는 실제로 세상과 등지고 스스로를 안으로 가두어 버렸다. 일체의 전화를 끊고 방문을 거절하고 외부출입을 중단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시인은 “지금도 그 공황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돌보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글조각들이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지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했다.

“이제 다시 시를 만날 수 있을까 막막하다.”고 말하는 시인은 “방랑이란 낱말이 문득 떠오른다. 얼마나 신선하고 유혹적이며 심신을 뜨겁게 달구는 말이던가. 청춘의 또 다른 말, 이제 그 모든 말들을 지우며 삼복에도 삼동 같이 문을 닫아야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홍윤숙은 여든을 넘긴 고령의 시인이다. 이 년의 공백을 깨고 건재함을 과시한 그녀의 왕성한 창작욕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시인의 힘이다.

V. 결론

15권의 시집을 상재하는 동안 홍윤숙의 시는 지속적으로 변모해왔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통시적으로 치우쳐있다. 그의 왕성한 시작활동에 비해 어조연구는 극히 부분적이며, 홍윤숙 시의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홍윤숙 시의 어조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15권 전체시집에서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어조의 정의와 홍윤숙 시 어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에 나타난 어조양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홍윤숙 시에 나타난 첫 번째 어조 양상은 역동적 어조이며, 두 번째 양상은 고백적 어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양상은 풍자적 어조와 해학적 어조를 통해 현실비판의 목소리를 고찰하였다.

첫째 역동적 어조는 의지와 신념의 의식이다.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 의지가, 절대자에 의존하는 과거지향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힘 있는 어조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윤숙 시의 어조는 대결과 충돌적 이미지나 유성음이 아닌 무성음, 경어나 한자어의 추상명사를 취해 힘이 실리는 것이다. 치열성을 지닌 제재와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 등의 서술종지형, 첩어구조를 지닌 의성어와 의태어, 준첩어의 상반된 반복 구조에서 역동적인 힘이 강렬하게 투사된다.

경구법이나 과찰음 내지 과열음의 활용을 통해서도 홍윤숙 시 어조의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작품의 구조 내지 존재양상을 밝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연결된 의미의 층을 밝혀 역동적 어조를 발견해낸다. 여러 계층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전체구조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¹²⁶⁾

둘째, 고백적 어조는 강한 유신론적 확신 위에서 시적 의지가 드러난다. 시인의 의지가 내면화되었을 때, 고백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시인의 내면 의식을 의지적으로 장식하는 고백적 어조로 풀어내는 것이다.

홍윤숙 시에 드러나는 관념의 중심은 언제나 기독교 사상이다. 이 시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적 체제가 기독교적 인식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홍윤숙은 사상과 정서가 서로 합일되는 바람직한 시의 구조를 획득하여 시의 정체성을 기대하게 한다.

홍윤숙의 종교적 의식에서 시 세계는 고백적 어조로 구체화되고 있다. 종교적 일탈의 고백적 발성법으로 언어의 절대 경지를 구축해낸다. 홍윤숙

¹²⁶⁾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시의 고백적 어조는 감상주의적 위상을 넘어서서 해체와 집합의 신선한 구도를 이룬다. 홍윤숙은 내면에 정체되어 있는 ‘나’를 통하여 현재시제를 통한 담담한 어조를 보여준다.

홍윤숙이 시 쓰기에서 추구한 구원은 종교적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과 직면하여 끊임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종교적 구원을 통해 시로 형상화 한다. 종교적 특징을 통해 영혼의 안식처인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는 삶의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신앙의 과정은 『일상의 시계소리』에서 시작하여 『낙법놀이』를 거쳐 『실낙원의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현실비판적 목소리가 풍자와 해학적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 내면에 숨겨진 그의 사회비판의식은 특별한 개인적 체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

홍윤숙의 시에서 풍자나 해학은 직설적이기보다는 내면에 깔리는 함축적 의미로 나타난다. 시적 미감에 충실하던 삶의 자세가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에 부딪치면서 반사적 언어구조로 현실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대에 대한 극렬한 비판이나 풍자이기보다는 은밀한 비판과 풍자의 호소력을 발휘한다. 또한 해학적 어조는 숭고성이나 절대미학이 표방하는 예술적 가치보다는 목적의식에 닿아 있기 때문에 질적 저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홍윤숙 시에서 의지와 신념의 역동적 어조와,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의 종교적 구원을 고백하는 어조, 때론 풍자와 해학을 통한 현실비판의 어조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역동적인 어조는 『여사시집』과 『사는 법』, 『풍차』, 『하지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백적 어조는 『실낙원의 아침』과 『타관의 햇살』, 『사는 법』, 『풍차』, 『태양의 건넌마을』, 『조선의 꽃』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현실비판적 어조가 많이 나타나는 시집은 『풍차』와 『장식론』, 『타관의 햇살』, 『내 안의 광야』, 『하지제』, 『사는 법』 등이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는 법』은 역동적인 어조와 고백적 어조 그리고 현실비판의 어조가 가장 다양하게 표현된 시집이다.

홍윤숙 삶의 역정에 수반된 시편들은 앞으로 더 다각적인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십 대의 혈기왕성한 학생운동 와중에서 체험했던 보다

적극적인 남성적 활동을 통해 그의 시적 아니마(anima)를 통찰하는 일과 종교적 귀의를 통해 본 그의 종교적 시관의 둘레도 독립적으로 천착할 가치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1. 기본자료

- 홍운숙, 『麗土시집』, 서울, 동국문화사, 1962.
- 홍운숙, 『風車』, 신흥출판사, 1964.
- 홍운숙, 『裝飾論』, 하서출판사, 1968.
- 홍운숙, 『日常의 時計소리』, 한국시인협회(서울, 문원사), 1971.
- 홍운숙, 『타관의 햇살』, 유림문화사, 1974.
- 홍운숙, 『하지제』, 서울, 문지사, 1978.
- 홍운숙, 『사는 법』, 서울, 열화당, 1983.
- 홍운숙, 『태양의 건넌마을』, 서울, 문학사상사, 1987.
- 홍운숙, 『경의선 보통열차』, 서울, 문학세계사, 1989.
- 홍운숙, 『낙법놀이』, 서울, 세계사, 1994.
- 홍운숙, 『북촌 정거장에서』, 서울 고려원, 1985.

홍윤숙, 『실낙원의 아침』, 서울, 열린, 1996.
홍윤숙, 『마지막 공부』, 서울, 분도출판사, 2000
홍윤숙, 『내 안의 광야』, 서울, 열린, 2002.
홍윤숙, 『지상의 그집』, 서울, 시와 시학사, 2004
홍윤숙, 『홍윤숙 시전집』, 서울, 시와 시학사, 2005.

2. 단행본

김대행, 『시가지학 구조 연구』, 이대출판부, 1991.
김준오, 『시론』, 삼지원, 제4판, 2005. 9.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푸른 사상, 2005. 4.
남경태,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 황소걸음, 2005, 초판 4쇄. 26면.
박철휘, 김시대 엮음, 『문예비평론』, 탐출판사, 2002. 1.
신동욱,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오세영, 『유치환-휴머니즘과 실존 그리고 허무의 의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개정판 4쇄, 2007. 9.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2001. 2.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 민음사, 1987.
이승훈, 『한국시의 구조 분석』, 종로서적, 1987.
이승훈, 『현대비평이론』, 태학사, 2001. 2.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2000.
이재호.이명섭(역) 『문학개론』 제 4판, 을유문화사, 1977.
정재완, 『한국 현대시의 반성』, 형설출판사, 1981.
홍문표, 『현대문학비평이론』, 창조문학사, 2003.10.

3. 논문

1) 학술지 논문

- 고정희, 「존재인식과 시간의식: 홍운숙의 시 세계」, 『현대시학』, 1981.2.
- 고형진, 「만해시의 어조연구」, 『오문학 연구』, 1995.
- 권혁웅, 「현대시의 어조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집, 창조문화사, 2008.
- 김광길, 「형식주의 비평연구」, 『경기대학교 인문논집』, 1997.
- 김영석, 「순수지향과 채관의 거리」, 홍운숙, 『해방시대』, 미래사, 1991.
- 김지향, 「홍운숙 시에 나타난 생활적 애정의식연구」, 『한양여전 시문집』, 제14집, 1991.2.
- 김현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인문과학논집』 64편 제 1호 별책, 이화여자대학교, 1999.
- 박상천, 「홍운숙론」, 『현대시』, 1991.5.
- 박상천, 「홍운숙론-시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1권, 1991.
- 엄경희, 「홍운숙 시인의 삶과 시 정신」, 『송실어문』 17집, 2001.
- 엄창섭, 「러시아 형식주의」, 『관동대 논문집』, 1995.
- 윤병로, 「한국 시에서의 기독교와 문학-김남조와 홍운숙의 시세계」, 『시문학』 280, 문학과 의식사, 1994. 11.
- 유한근, 「죽음과 극기의 미학-홍운숙 시 세계」, 『생각과 느낌』, 1994.
- 이상호, 「홍운숙론-시로 쓰는 삶, 삶으로 쓰는 시」, 『한국예술총집 문학편』 1, 한국 예술원, 1991.
- 이승훈, 「신비평과 러시아 형식주의」, 『한국학논집』 71,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0.
- 이향아, 「시의 이론과 실재」, 서울, 『국학자료원』, 2002.
- 이형기, 「소멸의 미학-홍운숙 시집-『태양의 건넌마을』」, 현대문학, 1997.2.

- 장백일, 「여사 홍윤숙론-시세계 추구」, 『시문학』, 2003.5.
- 조창완, 「시의 화자 및 어조의 문제」, 『심상』, 1982, 11.
- 하현식, 「언어의지와 다이어미즘: 우리시.70년대/31」, 『현대시학』. 1985.9.
- 허상문, 「형식주의 문학론」, 인문연구1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홍신선, 「홍윤숙론」, 『시원 김기동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 홍윤숙, 「시정신과 일상의 지평」, 『현대시』, 1990.1.

2) 학위 논문

- 강현국, 「청록파 시의 어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복순,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애정연구:모운숙,노천명,김남조,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영미, 「한국현대시의 어조 연구-영랑과 청마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영수, 「홍윤숙 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영연, 「신동엽 서정 단시의 어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지은, 「박목월 중기시의 어조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유지은, 「송수권 시 연구-시적 어조의 특성과 서정성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초기 시의 어조와 운율분석」,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승은, 「마중기 시 연구-어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영길, 「소월시의 어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조상호, 「김명인 초기 시 어조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6.

4.번역서

- Arthur Schopenhauer, 최민홍(역), 『인생론』, 집문당, 1990. 2.
- C. Carter Colwel, 이재호.이명섭(역) 『문학개론』 제 4판, 을유문화사, 1977.
- I. A. Richards, 이선주(역), 『문학비평의 원리』, 동인 2007. 10.
- Laurence Perreine, 조재훈(역), 『소리와 의미』, 형설출판사, 1998.
- Roman Jakobson, 신문수(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94
- R, W, Boynin, 『Intoduction to a poem』, NAYDEN, 1973.

